EAST ASIAN LIBRARY MAY 27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32 - 833 1982년 5월25일(화) & 26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 Wednesday, May 25. & 26,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점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영국 포클랜드 상륙

공정대· 해병대등 1천명 교두보 확보

알젠틴전투기 7대격추, 영국전함 2척 피격

(외신종합)영국은 21일 상오 8시50분(현지시간) 포클랜드점령 알젠틴군에 대한 육·해·공 전면공격을 감행, 1천명이상의 낙하산부대와 해병특공대를 침투시켰다. 영국군의 공격과 알젠틴의 반격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피차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아직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영국국방성은 지난 3일간의 전투에서 7대의 알젠틴 전투기가 격추됐고 수척의 영국함정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24일 발표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알젠틴 공군소속 미라주전투기와 스카이학 전투기들이 지난 21일 영국군이 해안에 구축한 교두보위 45 m까지 저공비행하면서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영국군은 시·해리어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등으로 반격, 2대의 헬리콥터를 격추하고 1대를 손상시켰다.

알젠틴의 보급선(223톤) 1척이 22일 영국 구축함의 요격을 받아 좌초했다. 21일 알젠틴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영국군 순양함 안티로프호는 23일 침몰했다. 승무원들은 침몰전 다른 함정으로 옮겨탔다.

알젠틴은 영국해군의 교체병력 수송선인 여객선 캔바라호가 격침됐다고 주장했으나 영국군은 이를 부인했다.

알젠틴군 사령부는 알젠틴은 21일 전투에서 영국군 헬리콥터기 2대와 제트전투기 2대를 각각 격추시켰으며 대잠용 소형 프리기트구축함 5척을 격파했다고 발표했다. 알젠틴군은 영국군공격개시때 공군제트기들이 포클랜드해역에 있는 프리기트함 5척을 공격, 4대를 대파, 177명을 태운 또 1대는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었다.

영국군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젠틴은 적어도 40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영국은 5대를 격추당했다. 알젠틴이 보유한 45대의 미라주전투기중 절반이 사라졌다. 영국하원에서 순양함 안티로프의 침몰소식을 전한 존·놋 국방상은 포클랜드탈환의 날이 멀지 않다고 말했다. 순양함 아던트호는 21일 상륙작전때 침몰, 수병 178명중 22명이 사망했다. 안티로프호 제조가격은 약1억5천만달러에 달하며 이로써 영국군은 이번 전투에서 3척의 함정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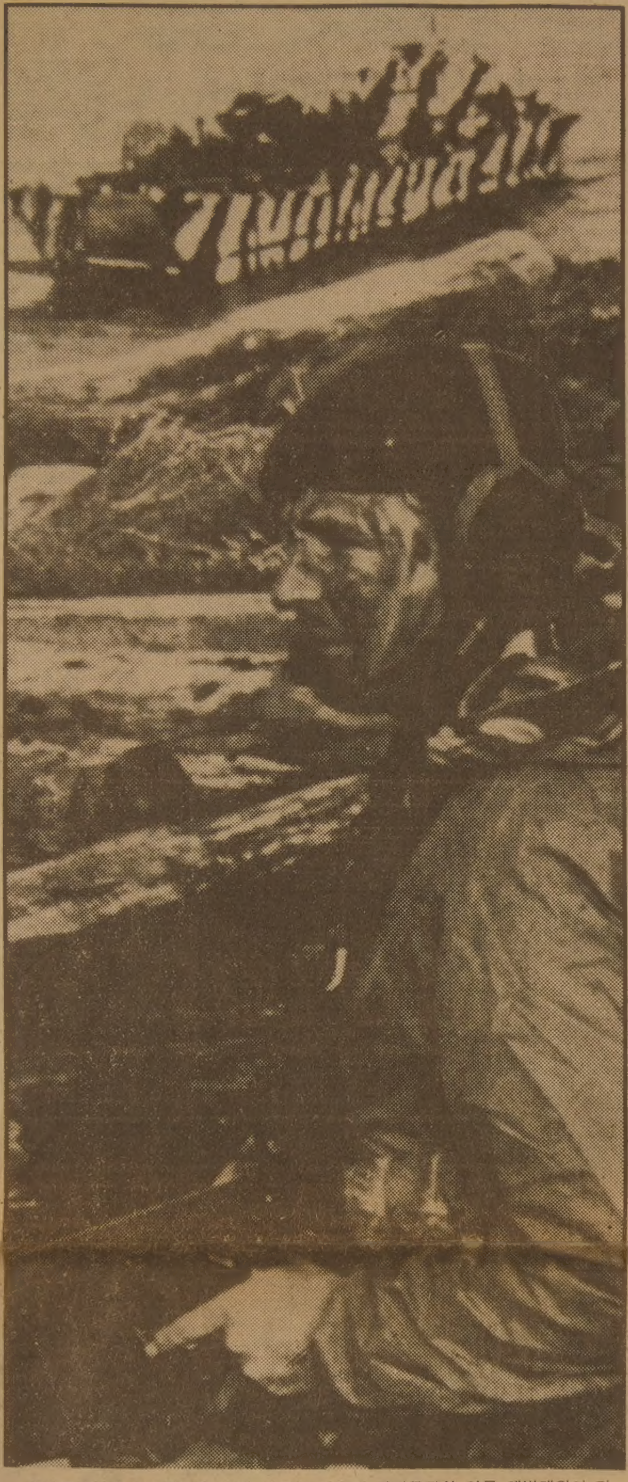
영국측은 약 5천명의 군인이 포트·산·칼로스 부근 26평방킬로 지역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영국측은 포클랜드분규로 24일까지의 전투에서 영국군 70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정보소식통은 알젠틴은 전투기및 헬기 58대를 잃어 공군전투능력의 4분의1을 상실했다고 추정했다.

한편 오는 28일 영국방문을 앞둔 교황 바오로6세는 평화협상중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으나 대처수상은 알젠틴군이 포클랜드를 떠날때까지는 적대감이 가실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영국의 데렉·워럭대주교는 교황의 방문일정은 변함없다고 발표했으나 바티칸교황청 관리들은 교황이 영국에서 종교적행사만 갖고 대처수상등 정치가들과의 회담은 취소할지 모른다고 발표했다.



◆상륙주정이 보급물자를 실어 나르는 가운데 완전무장한 영국 해병대원이 갓 확보한 교두보의 벙커에서 보초를 서고있다.

—식 · 칠드런병원 아기43명 사망사건 —

수잔 · 넬즈 일단 기소모면

검찰측은 수사계속 다짐

4명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식·칠드런어린이병원의 간호원 수잔·넬즈(25)양이 21일밤 1년2개월 의 시련끝에 석방됐다.

◆14개월만에 살인혐의를 벗은 수잔· 넬즈양이 미소를 지었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의 데이빗·바넥판사는 넬즈양을 형사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10주간의 적부심 결과 넬즈양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선언했다.

107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칠드런병원의 심장과에서 80년말과 81년초에 걸쳐 무려 43명의 아기들이 모두 심장약 「디옥신」 과용으로 죽었음이 밝혀졌고, 넬즈양은 이중 4명의 아기를 살인한 혐의로 작년 3월 체포, 입건됐었다.

수잔양이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은 4명의 아기들은 제니스·에스트렐라(생후 4개월, 81년1월11일 사망), 케빈·파사이(생후 23일, 81년3월12일 사망), 알래나·밀러(생후 1년, 81년3월21일 사망), 저스틴·쿡(생후 3개월, 81년3월22일)이었다.

14개월에 걸친 청문회는 보도금지됐다. 검찰측의 수사 경비는 $50만, 변호비만도 $20만로 알려졌다.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에 불구,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넬즈양은 이 사건으로 입건된 유일한 인물이었다.

81년3월25일 넬즈양 체포후 일어난 피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병동7층 F유니트에서 심장병약 디옥신이 대량 없어졌음이 발견됐다.

약사 라파포트씨는 81년1월21일부터 23일사이에 200밀리리터의 디옥신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매일 비타민 E를 투여받던 환자 8명의 혈액검사 결과 아드레날린 과용복용이 드러났다. 지난 1월26일 숨진 아기 조나단·머피도 아드레날린을 과용복용한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조사가 지난 주 시작됐다.

●넬즈양이 소속된 간호원팀인 4A조의 팀·리더 필리스·트레이너양의 증언— 작년8~9월에 그녀의 차, 아파트 문, 병원 옷장에 입술연지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그녀의 음식에는 알지못할 약물들이 들어있었다.

●4층 심장과 병동의 서기 애나·페르난데즈양의 증언 —수잔양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4명중 쿡아기가 죽은지 얼마후 4층 사무실로 넬즈와 비슷한 목소리의 협박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 피전화는 "스콧트 간호원과 팀·리더 트레이너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넬즈의 변호사 오스틴·쿠퍼씨는 이 당시 넬즈는 킹스턴, 오타와, 뱅쿠버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소아과과장 데이빗·카버박사는 죽은 29명에게서 디옥신 과용이 발견됐고, 그중 5명은 디옥신이 처방된 적이 없는 환자였다. 병원당국은 어떠한 경로로 이 아기들에 디옥신이 투약됐는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벨빌(Belleville)소재 자택 부모에게로 돌아간 넬즈양은 "이제야 세상은 내가 무죄임을 알았을거다"라고 크게 외쳤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과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일반여론은 판사의 판결에 납득하지 않고 "철저한 재조사"를 부르짖고 있다.

"어린이병원 재근무 희망"

넬즈양 자택서 밝혀

(벨빌)영아 살인혐의를 벗은 넬즈양은 22일 자택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14개월의 시련중 감옥소에서 보낸 5일간이 가장 수모스러웠다"고 말했다. 넬즈는 앞으로 간호원이란 직업은 포기하지 않겠으며 다시 식·칠드런병원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넬즈는 알려지지 않은곳에서 휴양중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 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Chevrolet & Oldsmobile

교민여러분! 제가 G.M. 자동차 딜러로서 일하게 된것에 인사 드립니다.
교민을 위해 성심 성의 껏 봉사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손명철(마이클 · 손)배.

CHEVETTE
CAVALIER
CORVETTE
CAMARO
MALIBU
MONTE CARLO

IMPALA
CAPRICE CLASSIC
CORVETTE
FIRENZA
OMEGA
CUTLASS CIERA

DELTA88
98 REGENCY
TORONADO
· 각종 VAN트럭.
· 중고차 취급
· LEASING.

HUMBERVIEW
3200 BLOOR ST. W. (로얄·욕 서쪽)
236-1011(B) 763-1155(R) 손 명 철 (마이클·손)

East AsianLibrary
Rm D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국·환태평양 정상회담 제의

캐나다등 11개국, 호주찬성

(서울24일=연합)한국을 방문중인 말콤·후레이저 호주수상은 한국및 호주를 포함한 11개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을 매년 갖자는 전두환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했다.

이 정상회담안에는 한국,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및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싱가폴, 태국의 아세안(ASEAN) 5개국이 참가한다.

이 지역에서의 각국 이해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환태평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전대통령은 작년초 미국과 동남아를 순방했고 뉴질랜드의 로버트·멀둔수상, 캐나다의 트루도수상이 방한했을 때 이 뜻을 비쳤다고 한국정부 소식통은 밝혔다.

한편 후레이저 호주수상은 호주의 천연자원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현재 서부지역의 파이프라인 가설및 석탄을 원료로 한 화력발전소 건설지원을 위해 수개국과 교섭중이다.

후레이저수상은 3일간의 공식방문차 23일 한국에 도착했다.

「광주의거기념사업회」 발족

2백여 교민, 희생자 추도식 엄수

80년 5월에 있었던 광주사건을 추도하는 광주의거희생자추도식이 23일 저녁 7시 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에서 2백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동안 엄숙히 거행됐다.

경과보고, 결의문낭독등으로 거행된 추도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광주의거기념사업회」를 결성, 초대회장에 윤택순(토론토대 물리학교수)씨, 부회장에 이충범, 박재선씨등 2명을 선출했다.

윤택순씨는 기념사업회 취지설명에서 "조국의 참된 민주회복을 위한 광주의거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조국에 민주회복이 이루어 질때까지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상철목사, 김재준 목사, 박찬웅씨, 홍순관 목사,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모였다.

「TV한국」 김정숙양 사임

MTV 후계자 물색 예정

◆김정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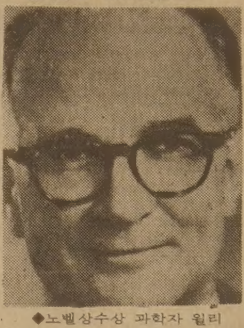
TV한국의 아나운서 김정숙(24)양이 오는 6월말로 TV한국을 떠난다.

MTV의 방송스케줄에 따라 7월 여름휴가를 앞두고 사임케될 김양은 79년1월 TV한국개설 이래 프로듀서를 겸한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TV외에도 한글학교(YMCA)교사, 무용등으로 교민사회에 활약해온 김양은 오는 8월 결혼후 미국으로 유학한다.

김양은 온타리오미술대학(OCA)에서 실내장식을 전공했으며 솔트레이크시 유타대학에서 계속 미술을 전공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533-2361



◆노벨상수상 과학자 윌리엄·쇼클리씨

정자은행아기 탄생

노벨 수상자 정자보관

(에스콘 = 캘리포니아주) 주로 노벨상 수상자들의 정자를 보관하는 정자은행 관계자들은 24일 최초의 정자은행을 이용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여인이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를 수정받아 건강한 9파운드 몸무게의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1979년 로버트·그래함씨가 우수한 두뇌의 과학자들을 증식시키고, 불임남편을 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정자은행은 주로 노벨상수상자들을 비롯한 두뇌가 우수한 남성들의 정자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명단은 비밀이다.

정자은행이 있다는 보도는 설치 2년뒤 멘사·불리틴(Mensa·Bulletin)지의 폭로로 밝혀졌는데 "멘사"란 지능지수가 세계인구의 2%내로 높은 남녀들의 그룹이다.

정자은행에 정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윌리암. 쇼클리(72)씨는 세차례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로 흑인보다 백인이 생태학적으로 우세하다고 공공연히 주장,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쇼클리씨는 첫 정자은행아기탄생에 대해 "놀랄만한 기도이다. 이런식의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맘골프대회 마감박두

6월12일 글렌이글골프장

한인천주교 한맘골프클럽(회장 홍진표)이 주최, 본사후원으로 진행되는 제6회 교민친선 골프대회가 오는 6월12일로 다가왔다.

해마다 참가자가 넘쳐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동대회는 참가인원 72명중 벌써 55명이 접수, 5월말로 접수가 마감될 것같다고 홍회장은 25일 말했다.

낮 12시부터 볼톤근교 글렌·이글 골프장에서 개최될 동대회는 핸디캡시스템을 적용 본 토론토한국일보사가 후원한다.

대회당일에는 시합이 끝난후 행운권추첨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그로스, 네트 각각5등까지 여자부 3등까지 시상되며 그외에도 롱기스트상등 특별상이 있다. 특히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는 C.P.Air와 한국여행사 공동제공의 세계일주 비행기표가 수여된다.

참가비는 $30로 홍진표회장(751-9236) 또는 정정홍씨(671-4555)나 무나미트로피(298-3584)로 연락하면 된다.

총리유임부당

야당 개각에 논평

(서울21일=연합)장여인사건과 관련, 11명의 장관이 경질된 지난 21일의 내각개편에 대해 야당인 민한당은 "유창순 국무총리를 비롯,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부서의 각료들이 개편되지않고 유임된 것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교민동정

◆김청자=미용실·다리치코와휴(Daricci Coiffure)근무 헤어·디자이너인 김씨는 21일부터 28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헤어디자이너·콘벤션 참가차 지난주 출국했다.

김여사가 소속된 「인터내셔널·코즈메틱·캐나다」는 김여사등 캐나다대표단의 항공표와 체재비를 부담했다. 김여사등 미용사들은 골드웰·코즈메틱 화장품회사가 주최하는 세계최대의 헤어쇼에서 세계 헤어·디자인 챔피언대회도 갖는다. 20년경력의 김여사는 배형도씨(한인장로교회장로)의 부인.

◆임종민(미드웨스트·오토바디 경영) : 1년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스카브로 지역의 많은교민의 이용을 부탁한다고. 위치는 미드랜드×로렌스. 전화 : 751-9280

〈소론〉

승공사상은 가정교육에서

이근우(승공문화협회 회장)

◆이근우씨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찾는 정서적이고 아름답고인정많고, 부지런한 국민이다.

만일 다시 한번 6.25같은 조국의 위기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국민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외쳐, 보다 강력한 반공투쟁에 앞장을 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농민들도 낫과 호미를 들고서라도 반공투쟁으로 조국을 수호할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을때 내 나라 태극기가 막살이되고 헌병의 총칼위협아래 놓인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우국지사의 의거 3.1독립선언문이 세계만방에 선포되고 전국민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것 이다.

또한 광주학생사건이 나고 자유를 갈망하는 신의주학생사건이 생긴것은 우리 머리에 역력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조국애에 불타는 민족인가! 선열들에게 머리숙여 넋을 위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자유의 나라 캐나다토론토 안에서 공산도배의 마수에 빠져 그것도 최고급 인사라고 자칭하는 교민이 조국의 수반을 암살해서공산화해 보겠다는 음모가발생되었다는 사실, 경악을금치 못했으며, 우리교민은너무도 수치스럽고 조국에대한 책임감을 면치못하는바이다.

첫째로, 우리교민은 정력을 쫓아 잘살아야 한다. 둘째로 2세3세의 교육문제다.

우리 2세, 3세는 캐나다교육과 더불어 우리말을잘하게끔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대한의 고유문화, 아름답고 정서있는 예의바른 서적을 많이 보급시켜 유구한 반만년의 전통있는역사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우리조국 역사를 알게되면 반공사상은 자연적으로 주입 될 것이다. 아울러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가이렇게도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질때 대한의피를 이어받은 아들딸이라고 이야기하며 긍지를자랑할 것이다.

우선 내가정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한다. 돈이있고 명예가 있어도 가정에 평화를 갖지못하면 인간성을 잊어버릴 것이다. 평화와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시간을 쪼개서 자녀들과의 대화의 광장을가져야 한다. 많은 대화속에 부모자녀간의 정이 생기고 이해가 성립되며, 따라서사상이 공고해지게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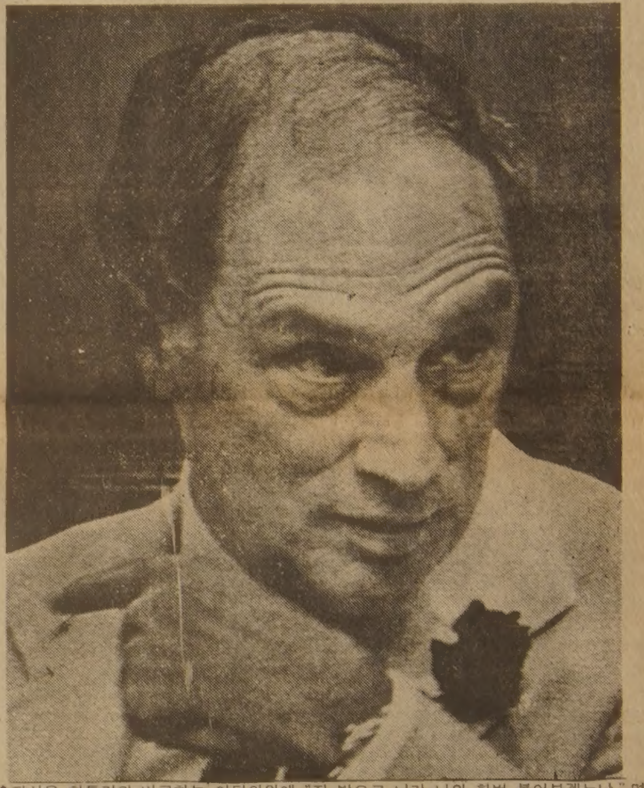
빠른시간을 지내다 보면 부모자녀간에 대화의 시간이 없고, 자기나름대로 피로를 풀기위하여 갖은오락에 많은 시간을 허비 하게된다.

그동안 자녀들은 허공감에 빠질뿐 아니라 이나라의 악습과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바로 이때"라고 공산도배들이 얼마안되는 자금을 주어 그들에게 향락을 시키고, 나중에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여 협박, 공갈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강요받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무서운, 자기도 모르는 인간성으로 변해지는 것이며, 공산주의 사상의 세뇌공작을 받게된다.

바로 이런것이 공산도배의 세뇌공작 술책이다

이민의 문화적· 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자신을 히틀러와 비교하는 야당의원에 "저 밖으로 나가 나와 한번 붙어보겠느냐" 며 노려보는 트루도수상. 20일 하원에서 트루도수상은 $30만짜리 주워싱턴 캐나다대사관 건물 건축을 둘러싸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오른 4개회사 대신 친구인 아더·에릭슨에 설계를 담당시킨 데 대해 비난받았다.

보수당의 존·프레이저의원은 "트루도는 건축기사를 고르는 면에서 허틀러가 친구 알버트·스피어를 고른것과 똑같이 처사했다"고 말했다.

트루도나 프레이저의원이나 실제 맞장붙어 싸우려 든 것 아니겠지만 참고상 두 사람의 신체조건을 따져보면

트루도수상 : 62세, 165파운드, 5피트 8.5인치, 유도 3급.

프레이저의원 : 50세, 178파운드, 5피트 8인치, 십대시절 권투를 좀 했다.

알콜中毒 젊은女性증가

레드북調査, 3명중2명이 35세미만

(뉴욕-AP) 알콜중독에 빠지는 젊은여성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잡지인 「레드북」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문제여성들은 대체로 10대에서 30대 사이로 직업도 경영인, 직장주부, 이혼녀, 독신모, 학생등 다양했다.

또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명중 2명은 35세미만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비롯 직업불안정, 강간사건, 원치않는 임신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겹들여 발생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여성들은 유전적인 요소외에도 손쉽게 술을 배우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드북」은 알콜및 마약문제에 관한 전국여성평의회와 미국가족봉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에서 알콜중독문제가 있는 1만1천명의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여행상식〉

CPAir를 이용한 모국방문 ②

김창범(신세계여행사)

◆김창범씨

낮과밤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 심해

여행보험 유리, 기내 공중도덕 지켜야

여행을 떠날때는 반드시 보험에 들기를 권장한다. 예약할 때 부터 미리 보험에 드는 수도있고 토론토 공항이나 벤쿠버공항에서 들수도 있다. 상해보험, 의료보험, 짐의 분실 또는 파손을 커버하는 보험등 여러종류가 있고

여행기간에 따라 가격도 다르다. $15만까지 커버하는 생명보험은 $45정도 지불하면 된다. 보험카드(Insurance Policy)를 작성한후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우송한다. 별일 아니지만 보험증서 받아보는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정과 배려를 느낀다. American Express Credit Card로 표를 구입하면 $75,000까지 보험이 자동 카바 된다.

벤쿠버를 출발한 거대한 점보젯트기는 시속 500마일로 약 9시간의 긴 여행을 계속한다. 기내에서의 써비스는 대륙횡단과 대동소이하나 지루한 시간을 잊게하여 주느라고 객실승무원은 쉬지않고 움직인다. 여객중 중국인과 일본인이 많으므로 중국과 일본출신 승무원이 탑승한다. 식후 마시는 음료수에는 일본차와 중국차가 준비돼 있는 것이 국내선과 다른 점이다.

기내 변소에는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등 5개국어로 주의서가 붙어있다. 변기속에 변기가 막히는 물건은 버리지말아 달라는 요청이다. 기내에서의 몸가짐에서 그 사람의 교양도와 공중도덕심을 알아볼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안된다. 구두를 벗는것은 좋으나 어떤 일본인들은 가끔 발을 앞좌석 머리위나 좌석옆에 내밀어 앞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는 광경도 목격했다. 남들이 잠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큰 소리로 떠들고 웃으며 술기분에 도취되어 고성방담하는 외국인들도 있다. 어린애가 고단하거나 실내 기압차로 귀가 아파서 칭얼대고 울어대는 수도 있다. 기내가 만원일때 식사도중 포크와 나이프를 놀리다보면 옆좌석의 식사를 방해하는 경우도있다. 이 모든일에 공중도덕심을 발휘해 주의하여 행동하고 문제가 있으면 승무원을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오랜 여행경험에서 보면 시간차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신경계통이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은 예민하다고 하며 우리가 아침에 눈을뜨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의 신경계통을 지배한다. 그러나 잠에 들고나서는 교감신경은 일단 쉬고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큰 외부충격이 없는한 둔할정도로 인체를 지배유지한다. 우리가 규칙적 생활을 할때는 낮과 밤에 따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일하며 쉬게되는데 우리들이 이 정상적 싸이클(주기)를 갑작히 바꾸게 되면 신경계통에 혼선이 생겨서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흐려지게 된다. 동서로 여행을 하여 시간차가 생기거나 낮밤의 근무시간이 달라질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 부작용을 피하는 길은 조금씩 변경시키며 신경을 달래는 수 밖에 없다.

나의경우 토론토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시간을 맞추고 바꾸어 간다. 시계도 출발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벤쿠버까지는 그런대로 시간표가 비슷하다. 식사시간도 비슷하다. 벤쿠버를 떠나 1-2시간되서 나오는 스낵은 토론토에서의 저녁식사이다. 그리고 약 3시간후 그러니까 벤쿠버를 떠난지 5시간후는 토론토시간으로 밤10시 이므로 우선 잠을 청한다. 남들은 식사하고 영화감상 하느라고 야단들이다. 만일 잠이 깊이 안든다해도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 교감신경이 쉬게된다. 그 상태로 4시간정도 쉬면 훨신 머리가 가벼워진다. 기내에서는 동경착륙에 앞서 기내방송이 있고 오랜지쥬스등 음료수가 배급되고 물수건을 나누어 준다. 마치 잠을자고 아침에 일어난 기분으로 동경의 저녁시간에 내린다.

뉴욕↔서울간을 週4回 運航합니다.

6月1日부터 金曜日便 新設!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워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여러분의 모국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모시기 위해
서울↔뉴욕간 金曜日便을
新設 하였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는 더욱 편해진
大韓航空을 이용해 주십시요.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하계운항 스케쥴 안내

*표는 6月1日부터 運航

KE 007	편명	KE 008
火·木·金*·日	요일	火·木·金*·日
23 : 55	뉴 욕	21 : 50
↓	(앵카리지)	↑
06 : 30+2	서 울	19 : 00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 민족의 날개
KAL 大韓航空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로 해 주십시요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여동원 수필선〉 (3)

웃 음

"여보, 당신도 저 일본 여자들처럼 좀 싹싹하게굴며, 함박 함박 웃어봐"

"뭐 내가 세때첩인줄 아세요?"

가만히 보면 내 아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중국여성들 못지않게 웃는 기술(?)만은 아무래도 세계에서 그 순서를 꽁무니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그렇다. 우리의 여성들은 아양떨고, 간지럽게 웃는 짓을 천한 세때첩의 전매품으로 돌려버린다.

그래서 안방마님은 사랑채에 계시는 최정승 못지않게 언제나 근엄하시다.

그럴는지 모른다. 아내의 이론이 지당할지 모른다. 진정 웃고 싶을때 웃고픔 입에 물고 입만 뺑긋, 그것이 우리네 여성의 최대웃음의 유산이 었지 않은가!

전세계 남성의인기인 일본여성들의 그 간드러진아양과 상냥한 웃음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본여성이 짓는 웃음의 뒷면에 숨어있는 독함을 알고 있다.

일본역사소설 〈대망〉이란 책을 읽어보라. 일본여성들이 그렇게 독할 수가 없다. 허술한 데가 없다. 철저하다. 무섭기까지하다.

그 책을 본 후 일본여성들의 그 부드러운 웃음이 웃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철저하리만큼 독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일본인들이니 저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지구 구석구석을 일본상품의 홍수로 일본병을 앓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칼을 들고 상둥상둥 배를 자를 망정, 오늘 그네들은 상냥하게 웃는다. 내면의 강철같은 독함을감춘 외면의 솜같은 미소, 그것이 "일본인 상"이라면창녀가 웃는 웃음과 별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창녀의 웃음이란 속 다르고 겉 다르다. 돈을 낚기위해서만 존재한다.

내적 만족의 자연적소산의 육체적인 형이상학적표현의 웃음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독이다.

나는 가게에서 하루에도 수천번의 웃음을 짓는다. 내가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이 웃음도 그 목적이 돈 때문이라면 창녀의 웃음과 하등 차이가 없다. 내자신의 가게안에서 짓는웃음을 실험관에 넣고 분석해 보면 엄청난 사기성 거짓성이 탄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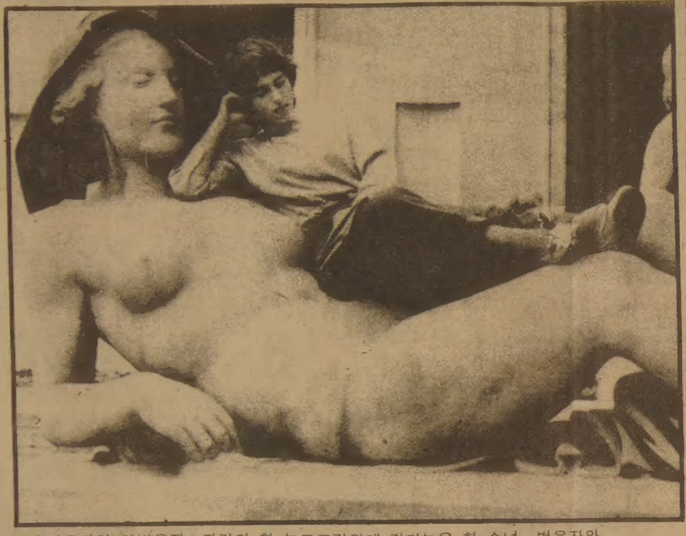
선거유세에서의 정치가의 웃음, 화려한 외교관의 웃음, 그리고 신흥종교 교주들의 그 야릇한 미소, 전도사의 판에 박은 듯한 직업적(?) 미소, 이런 웃음들을 시험관에 넣고 분석해 보면 과연 어떤 색깔이 되어 나올까? 무색일까?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는 웃어야 될 일보다 울어야 될 일이 더 많고, 찡그 릴 일이 더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웃으며 살고 싶다.

거짓웃음, 억지웃음, 그 이그러진 미소가 아니라유우모어가 있는 밝은 삶을 살고 싶다. 가난중에서도 풍부한 유모어감각을 지녔던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귀한 유산을 비록 우리가 고된 이민을 살망정 가꾸며 살고싶다.

정치와 종교의 긴장된이야기들 속에서, 휴식 없는 돈벌이 전선에서 우리는혹시 신경질적인 사람들이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잔 술에 맘트고, 너와 내가 마주보고 밝게 밝게 웃고 싶다.



◆벗은자와 안벗은자 : 파리의 한 누드조각위에 걸터누운 한 소녀. 벗은자와 안 벗은자는 언제나(?) 잘 조화되는듯.

제1회 친목회 이대음대 동문

이화여대 음대동문들은 첫 친목회를 오는 19일(토) 낮 12시 장영자동문댁(71 Paperbirch Dr., Don Mills)에서 갖는다.

발기인들은 약20명으로 추산되는 토론토의 동문들이 빠짐없이 참석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박성희(Mrs.황) 286−1548, 장영자(Mrs.신) 447−3988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젖,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㊹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부리노는 어느새 내 무릎앞에 꿇어앉아 마치 한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듯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죄인이 아니었다. 부리노는 이미 자기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온 정열을 바치고자 하는 사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강력하게 체험한 주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려는 사도의 심정을 그는 갖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그는 또한 한 예언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교회가 해내야 할 사목상의 방향을 제시하며 신부로서의 내가 뭣을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러한 부리노한테서 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를 속속드리 경험한 다음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회개자의 영혼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바오로 사도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영하롭게 하셨고, 아오스딩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의 철학과 신학을 집대성 하셨으며, 또한 아씨시의 프란시스꼬와 샤를러·후꼬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는 교회가 가야할 「가난한 길」을 보여주셨다. 그분들은 다 그 시대의 위대한 사도요, 또한 예언자들인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증인들이다.

이러한 뜻에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에게 있어 부리노는 사도요 예언자였다. 이제 나는 부리노를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로부터 현대에 적응하는 사목적 방법과 사목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배우고 있었다.

"무슈 아스랑,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받은 감명 큽니다. 정말이지 당신의 말은 좋은 강연인 동시에 아주 훌륭한 강론이었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리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길거리 미사를 지낼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오?"

"방법이란 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미사를 지내게 되면 우선 사람들을 모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저와 슈잔이 노래를 불음으로써 사람들을 길거리로 불러낼 수 있읍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의 노래를 들으려고 집에서 나오겠지만 한때 짐승처럼 미쳐있던 저를 보려는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은 모여들 것입니다. 약 한시간 동안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다음, 신부님께서 그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해 주시면 합니다. 물론 미사를 집전하실때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아서 미사참례 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옵니다."

"알겠소. 본당 신부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 보리이다."

"상의를 하시되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가난을 핑계삼아 자기들의 구령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도적 마음을 갖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리노의 음성에는 신념이 넘쳐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빛나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 보리다. 그런데 길거리 미사에 대한 교회당국의 허가를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길거리 미사도 일종의 가두 행산데 그것을 하려면 시경찰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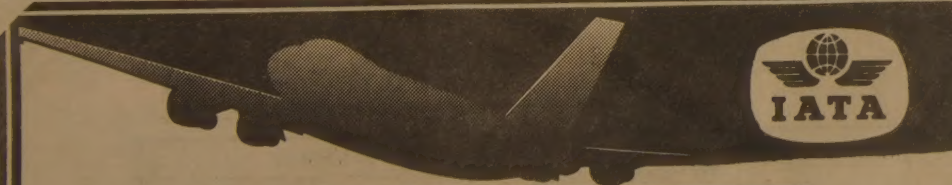
"그런 허가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 없읍니다. 제가 경찰국 유치장을 내집처럼 드나들던 시절 사귀어 놓은 경찰국 고급간부가 바로 우리 본당 신자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읍니다."

"좋습니다, 무슈 아스랑, 오늘 나는 당신의 말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 당신의 그 열렬한 사도적 정열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길잃은 양"(루가1절~7절)을 찾아나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읍니다. 그 옛날 당시 유태인들의 엄격한 율법과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이방인인 고르넬리오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오늘 나에게 길거리로 나서라는명령을 하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읍니다. 무슈 아스랑,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지역에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합시다."

"태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사랑하시지 않읍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고통을마다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바로 제 이웃 이라면 저는 어떠하면 좋겠읍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태오 신부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흘리신 그피와 맞이하신 그 죽음을 우리는 헛되게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때 마주잡은 우리 손에서는 뜨거운 땀이 흐르고 있었고, 부리노의 두 눈에서는 전등에 비친 눈물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저녁식사후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를 서재로 찾아가 부리노가 제의한 길거리 미사에 대해 상의했다. 그분은 관심있게 내 말을 들어줬으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분은 길거리 미사에 대한 사목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단지 주교청의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아래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려는 하겠으나 당분간 거론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했다. (계 속)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등록마감 5·월31일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개점7주년
Noritake
크게 싸게 팔기

5월18일부터 6월12일

○최고급 150종류 진열
○어느 품목이든 정가에 35% 할인
○접시 한장도 살수 있음
○기타 원가로 파는(50% off) 8인조, 12인조가 몇상자 있으니 일차 구경오세요.
○일류백화점보다 비싸면 현금 즉시 반환
○냉면그릇과 큰접시는 정가에 75% 할인
○저희가 끝나면 다음은 Simpson's에서 Sale 하는데 5% 이상 비쌉니다.

AMIK CRAFTS
4841 Yonge St. Sheppard Centre
221−5990 (Mrs. 고)

11部長官 경질

"重責수행에 私心버려야"

全대통령 모든사람 包容하는 政治力발휘를

새閣僚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21일하오 청와대에서 鄭致根법무장관등 신임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重責을 맡은이상 국가와 국민을위해 성심성의껏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관해 私心을떠나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소임을 완수해달라』고 말하고『소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파악해 올바른 정책을 立案、소신있게 실천해달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人事에 공평을 기하고 人和를 도모해 모든사람을 包容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모든 소속 직원들이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일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상오 權翊鉉사무총장등 民正黨의 새黨職者들에게 임명장을 주는자리에서『이번 民正黨의 당직개편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대해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心機一轉하는 의미가 있었기때문에 단행된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총재인 全대통령은『새당직자는 전임자가 하던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자는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진적이고 발전적인 토대위에서 黨운영을 개선해나가자는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그동안 당직자들이 매우 잘했지만 이런것 저런것 고쳐야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을것』이라며『전임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사리를 잃지 않도록 보살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民正 黨憲일부개정 事務總長기능 분산

民正黨은 權正達前사무총장의 退陣을 계기로 黨憲을 일부개정, 현재 사무총장중심으로 되어있는 黨職기능을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에 분산시킬 방침이다.

民正 첫幹部회의

李載灐 民正黨 대표위원은 21일 權翊鉉사무총장등 신임黨職者들이 참석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정당이 국민속에 뿌리를 내려 국민의 신뢰를 얻고 權黨인 우리黨이 국민의 애정을 얻기에는 비록 시간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이제는 국민의 불만을 잠앞아 黨운영에 있어서도 그런측면

◇새 內閣 名單 ※新 : 신임 (이름 고딕체)

職位	姓名		年齡	出身	學歷·略歷
總理	劉彰順	留	64	平南 安州	平壤商業 美하스팅스大 부흥부차관 韓銀총재 商工長官 企劃院장관 무역협회회장
副總理	金埈成	留	62	慶北 大邱	京城高商 大邱銀行長 第一銀行長 外換銀行長 商議부회장 産銀총재 韓銀총재
外務	盧信永	留	52	平南 江西	서울法大 외무부亞洲局長 駐로스앤젤레스、뉴델리 總領事 駐印度대사 제네바대사 外務次官
內務	盧泰愚	留	50	大邱	陸士11期 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陸軍大將예편 政務2·체육부장관
財務	羅雄培	留	48	忠南 大田	서울商大 경영학박사 서울商大교수 한국경영연구원장 해태製菓사장 한국타이어사장 11代의원
法務	**鄭致根**	新	51	慶南 蔚山	서울法大 釜山지검검사 서울지검부장검사 大檢공안부장 釜山지검검사장 검찰총장
國防	**尹誠敏**	新	56	全南 務安	陸士9期 사단장 陸本인사참모부장 군단장 육군참모차장 軍사령관 合參議長
文敎	李奎浩	留	56	慶南 河東	西獨튀빙겐大卒 철학박사 延世大교수 同교육대학원장 한국哲學會회장 국토통일원장관
體育	李源京	留	60	慶北 月城	서울商大 外務次官 合同通信사장 대한체육회부회장 文公長官 KOC상임위원 올림픽조직위사무총장
農水産	**朴鍾汶**	新	50	慶南 居昌	慶北大農大 농학박사 농수산부農産局長 殖産次官補 立法議員 江原道知事
商工	**金東輝**	新	50	慶南 梁山	서울文理大 高試행정과합격 외무부歐美局長 외무부경제차관보 文公次官 이란大使 外務次官
動資	李宣基	留	53	慶北 善山	大邱大 美시라큐스대학원수료 경제기획원차관 국무총리行調실장 民正黨총재비서실장
建設	金宗鎬	留	56	全南 光陽	陸士8期 사단장 국방부군수차관보 소장예편 아세아자동차사장 錦湖産業사장 全南知事
保社	**金正禮**	新	54	全南 潭陽	潭陽女高 여성週報社사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위원장 立法議員 11代의원 民正黨中執위원
勞動	**鄭漢株**	新	54	慶北 善山	延世大경영대학원 勞總사무총장 전국부두노조위원장 立法議員 勞總위원장 平統정책자문회의위원
交通	**李禧性**	新	58	慶南 固城	陸士8期 정보참모부정보처장 사단장 국방부기획국장 군단장 陸參총장 방직협회장
遞信	**崔順達**	新	51	大邱	서울工大 美버클리大 金星社중앙연구소장 東洋나일론상무 한국전기통신연구소장 外資도입심의위원
文公	**李振羲**	新	50	慶北 淸道	서울法大 東亞日報기자 서울신문정치부장 9代의원 立法議員 文化·京鄕사장 MBC사장
總務處	**朴贊兢**	新	56	京畿 坡州	陸士7期 군단참모장 사단장 군수지원사령관 국방부防産次官補 군수기지사령관 國防次官
科技處	李正五	留	50	慶北 義城	陸士13期 美터프츠大공학박사 陸士中央大교수 한국과학원교수 원장 科技硏소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統一院	孫在植	留	48	慶南 密陽	서울法大 美버밍험大 忠南부지사 내무부지방국장 京畿知事 釜山市長 내무부차관
政務1	**吳世應**	新	49	서울	延世大 美아메리칸大박사 在美유학생연합회장 한국통신사이사장 立法議員 8·9·10·11代의원
法制處	金永均	留	53	慶南 固城	陸士11期 서울法大 高試사법과합격 육군법무감 陸軍준장예편 國保委法司위원장 立法議員
援護處	李種浩	留	51	서울	海士5期 美海軍大 海軍본부인사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한국함대사령관 海軍中將예편

"不美사건에 책임통감 總理등 收拾위해留任"

全斗煥 대통령은 民正黨의 주요黨職을 개편한데이어 21일 11명의 각료를 경질하는 대폭적인 改閣을 단행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법무부장관에 鄭致根검찰총장、국방에 尹誠敏합참의장、농수산에 朴鍾汶 江原道지사、상공에 金東輝외무차관、보사에 金正禮 民正黨의원、노동에 鄭漢株노총위원장、교통에 李禧性 紡織협회회장、체신에 崔順達 전기통신연구소장、문공에 李振羲 문화방송사장、총무처에 朴贊兢 국방부차관、政務1장관에 吳世應 民正黨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에 羅熙弼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으며 국세청장에 安武赫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劉彰順 국무총리로부터 전국무위원및 국무위원급 25명의 一括辭表를 전달받은뒤 이같이 改閣을 단행하고 劉총리를비롯한 나머지 각료들에대한 사표는 모두 반려했다고 李雄熙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李대변인은 이날 改閣내용을 발표하면서『이번 대폭개각은 최근의 不美스러운 일련의 사태에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가 心機一轉해 새로운 각오로 國政에 임하려는 全대통령의 결의를 나타내는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저액어음부도사건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재무장관이 마땅히 책임을져야하지만 사태의 뒷수습이책임을 지는일보다 훨씬 중요한것으로 全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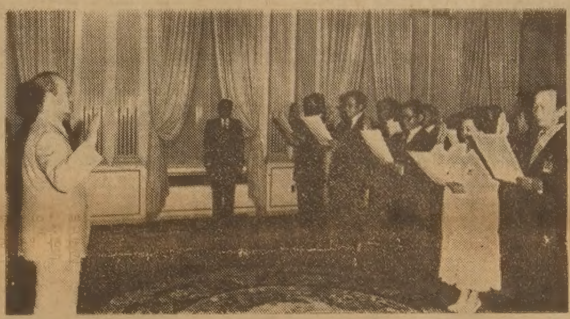
이번改閣으로 20일의 民正黨주요黨職者개편과함께 民心수습을위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斷案은 일단 매듭지어진것으로 보인다.

"실추된 政府신뢰 새각오로 되찾자"

改閣이후 첫國務會議

劉彰順 국무총리는 21일하오 改閣후 처음열린 국무회의에서『새로 入閣한 국무위원과 留任된 국무위원들은 全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비장한 각오아래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되찾도록 바른 행정을 펴나가는데 혼신의노력을 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

劉총리는 이어『이번 개각은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가 心機一轉해 새로운각오로 國政에 임하려는 全대통령의 결의를 나타낸것으로 본다』며『신임국무위원들은 행정의 공백이없도록 소관업무의 인수를 신속히하고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이 21일 신임閣僚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취임宣誓를 받고있다.

法務 鄭致根
國防 尹誠敏
農水産 朴鍾汶
商工 金東輝
保社 金正禮
勞動 鄭漢株
交通 李禧性
遞信 崔順達
文公 李振羲
總務 朴贊兢
政務1 吳世應

安保常勤委員 羅熙弼
國稅廳長 安武赫

◇鄭致根법무

◇尹誠敏국방

◇朴鍾汶농수산

◇金東輝상공

◇金正禮보사

◇鄭漢株노동

◇李禧性교통

◇崔順達체신

◇李振羲문공

◇羅熙弼위원

◇朴贊兢총무처

◇安武赫청장

◇吳世應정무1

後續人事 今明단행

정부는 이번改閣으로 공석이된 검찰총장、국방·외무차관、江原지사、合參議長등의 後續人事를 금명간 단행할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위소식통은 21일상오『검찰총장과 次官級후속인사등이 빠른시일내에 단행될것』이라고 밝혔다.

"책임政治구현에 탄력자세"與 "民心수습하는데 아직未洽"野

5·21改閣논평

民正·民韓·국민당등은21일 정부의 改閣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民正黨 金璟泰대변인=이번 대폭개각은 民正黨당직개편과 더불어 책임정치를구현하겠다는 제5공화국 정부의 탄력성있는 자세를 보인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前向的자세로 단합해나가야할 것이며 民正黨도 새내각과함께 개혁의지를 새로이 다짐해 나가야할 것이다.

▲民韓黨 金珍培 대변인=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각료를 그대로 놓아둔채 개각을 단행한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없다. 우리당은 참으로 책임정치를 이룩하고 民心을 수습하는길은 국무총리를 비롯, 책임있는 관계 각료의 경질을 즉각 단행하는 일뿐이라고본다.

▲국민당 李成一대변인=정부의 개각은 위기에 처한 시국을 수습하려는 노력의흔적이 일부 엿보이긴 하나 이번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을 통감해야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각료가 제외된것은 유감스러운일이다.

▲議政同友會 愼順範임시대변인=國政전반에 관한 民主化를 추진하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

"背後糾明 이정도로 끝내면 檢察수사의 限界 드러낸것"

林民韓총무 논평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 21일 張여인사건에대한 검찰수사결과에 언급,『배후 세력에대한 규명이 이정도로 그친다고 한다면 이는 검찰수사의 한계를 드러낸것이거나 의도적으로 그규명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수사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이례적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정치권력의 비호없이 이같은엄청난사건은 저질러질수 없으며▲검찰이 李圭光씨마저 배후세력으로 작용한바 없다고 결론을 내린것은 납득할수없고▲共榮·一信의 견질어음발행은 張여인부부와의 공모에의해서만이 이루어질수 있는데도 張여인부부의 단순행위로 처리함으로써 사건의확대를피했다고 지적했다.

林총무는 또 善意의 다수 피해자는 張여인부부와朝銀·商銀 은행장들과의 공모에의한 피해자가아닌 張여인부부에의한 사기피해자로만 파악함으로써 피해보상의길을 막아놓았다고 주장했다.

社会漫評

"마음에 드시는지…"

地平線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李哲熙·張玲子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검찰총장은 말했다。7천억원의 사건규모로 보아 틀림없는 표현이겠으나、27명의 검사와 1백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한 수사태세 또한「최대」임이 틀림없다。그러니 1만자가 넘는 검찰발표문은 두「최대」의 집약이다。

▼검찰의 온힘과 지혜를 결집시켰다고 할 발표문은 지난번 중간발표문에 비하면 깔끔하고 읽기 편하다。내용보완을 거듭했다고 하지만、加筆修正의 티가 별로 없고、피의자 조서나 공소장처럼 딱딱한 티가 적다。범죄구성 요건을 두루 特定하기보다는「讀者」를 염두에 두고、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려 애쓴 흔적이라 하겠다。갖가지 루머에대한 해명을 겸한 것이라、그만한 고심이 있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발표문에는 미묘한수사표현이 간간이 보인다。한두가지 인용하면、李哲熙씨는 군장성·정보부차장·국회의원경력을『은근히과시』、은행장 林在璓씨는 李圭光씨의『後光的역할』을『은근히 기대』했고、李圭光씨주변의 인물들은 李씨가『마치…실력있는 세도가인양 허세를부린듯한 흔적』이 있으며、李圭光씨는 李·張부부를『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하여『남다른 탐욕、사치와 허영、낭비벽이 있는』李·張부부는『온갖 기교와 詐術을 다하여』사단을 벌였다。수사의 한 초점인『배후관계』는『과시 또는 위장』『허세』뿐이었다는 얘기다。결국 중간발표 때와같은 결론이지만、발표문에 밝힌 법치국가論과『실정법의 근거』가 아니라도、법률적인측면에서는 그결론을수긍할수밖에없다。그것이 현사건수사의 한계일지 모른다。

▼그 한계속에서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할만하다。하지만 검찰수사가 사건을 한꺼풀씩 벗겨감에따라、오히려『眞性루머』라는 新語가 생겨났던 사회적인바탕은 기억해야 할것같다。뒤진 수사가、한 걸음 앞선 루머를 입증해주는 꼴이 되어、「진짜 거짓말」의 아이러니를 등장케 한것이다。검찰발표문에『미흡한 부분』『일부여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배경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수사가「발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검찰스스로도、꼭 공소유지를 위한것만이 아닌 보완수사방침을밝혔다。그수사는「떡고물」을 먹은 公人이 더 없었는지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수사의 한계를넘어선 정치·도의적인차원에서도「眞性루머」마저 말짱히 가시게하는 노력이 거듭 되었으면한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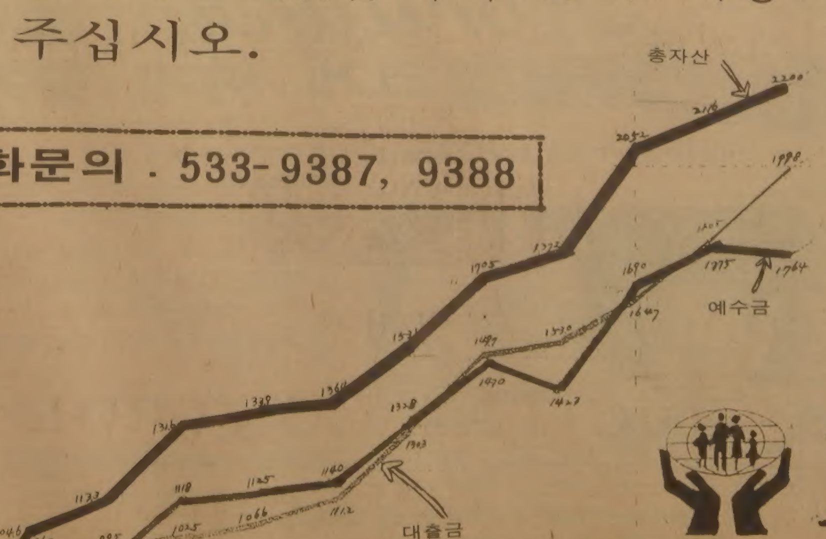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약진하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파격적**인 **예금금리**로써 봉사하고 있읍니다.많이 애용하여 주십시오.

전화문의 . 533-9387, 9388



정기예금 Term Deposit	한인신용조합	일반은행	
		$5천미만	$5천이상
30일	14.5 %	13 %	13.5 %
90일	15. 25%	13.75%	14.5 %
180일	15.5%	13.75%	14.75%
1년	15.75%	14.75%	15.25%

1. 한인신용조합은 $5,000미만도 차별없이 우대합니다.
2. $100,000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 533-9387, 9388

社說

心機一轉의 清新性
—政府·與黨 새陣容에 期待한다

책임정치의 일깨움아래 民心一新과 國政刷新을 다지는 政府·與黨의 一大改編이 단행되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20일하오 李哲熙·張玲子부부의私債非理사건에대한 檢察수사결과가 발표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집권 民正黨의 黨職을 개편하였고, 이어 21일상오에는 예측이상의 清新性을 감촉케한 대폭改閣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改編은 우선 全대통령에 의하여 영도되는 政府·與黨이 최근에 잇딴 충격적 大型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와에 통감하는 政治的 道義的 책임의 深度를 측정케하는 동시에 비장한 각오로 心機一轉의 재出發을 기약하는 자세를 알아보게 한다. 구시대의 사건糊塗경향과는 판이하다 하겠다. 또 高位層 신변인사들까지 道義的관점에서 公·私職에 걸친 사의표명을 거듭하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民心一新에 이바지하려는 늠름한 결의의 표현임을 평가하게 한다.

국무위원및 黨인사 25명중 11명의 각료를 更迭한 이번 대폭改閣에서 특징적인 것은 新進氣銳의 등장이 뚜렷한 반면 제5공화국 출범이전에 임명된 과도기적 성격의 상당수 각료가 퇴진했다는 사실이다. 民正黨소속국회의원도 2명이 入閣했는데 구시대에 野黨的性向을 지닌 인사로 알려져 있었으니 역시 新味를 느끼게 한다.

劉彰順국무총리및 金埈成부총리를 비롯한 經濟부처장관들의 일부留任은 引責이상으로 收拾노력이 중요하다는 고려를 짐작케한다. 격동기에는 人的構成의 刷新과 더불어 동요의 극소화라는 요청도 작용하게 마련이다.

黨職改編에서는 創黨主役중의 두뇌한 중진이라고 알려졌던 權正達前事務總長을 비롯하여 몇人士의 퇴진이 주목된다. 그동안의 노고를 십분평가하면서도 公黨다운 이미지를 새로 자체확인하려는 뼈아픈 노력의 다짐이라고 짐작되게 한다. 새 重鎭들의 면모는 新風도입에 볼여 黨內民主主義의 진일보 발양을 기대케 하는것으로 전문된다.

여기서 우리는 閣僚와 與黨要職에 핫혈보게된 「未知數의 새 얼굴」들에게 新境地개척의 기대가능을 강조해 두고 싶다. 구시대의 관료주의가 「卓上行政」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陣頭指揮와 民主的 氣風의 발양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다.

새출발을 期約하는 政府·與黨인사들앞에 제기되는 으뜸가는 과제는 결국 국민의 「信賴」회복으로 집약된다. 그동안에 충격적이고 불미한 不祥女人사건은 우리의 政治·經濟·社會·法制등 여러분야에 걸쳐 심각한 「不信」을 만연시켰으며 자칫하다가는 서민층 正常生活의 정신적 기반을 잠식하고 동요시킬까 걱정되기도했던 것이다. 이제 그 後遺症은 말끔히 치유되어야 할 참이다. 따라서 心機一轉의 收拾노력의 설정한 목표는 信賴회복으로 보장될 安定외에 딴것이 있을수 없다.

나아가서 그安定기반위에서만 평화와 번영의 전망이 가능하고, 또 이 전망이야말로 民主主義의 土着化를위한 필수적 조건으로된다. 「危機나 非常事態에 직면한 政治가 立憲政治일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한 위어의 갈파도 상기되는 터이다.

지난날의 古典的 政治觀에 의하면 民主主義란 「人物아닌 法律에의한 政治」라고 했으나, 現代政治의 省察에서는 「制度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人物」이라는 국면에 상당한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특히 문제 많은 新生國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 제5공화국의 大統領中心制 또한 그같은 現實的 고려를 십분감안한 것이다. 강력한 리더쉽에 질서와 안정을 기탁하는 동시에 議院內閣制와 장점 도입에도 인색치 않았다.

그리하여 內閣각료들의 보좌와 협력의 求心點에 大統領이 자리하는것과 아울러 각료들에게도 책임있는 主體性이 다짐되게 마련이다.

이 文脈에서 우리는 이번에 단행된 政府·與黨의 人的構成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全대통령은 行政府의 首長이자 與黨의 총재를 겸한 國政의 최고책임자로서 비장한 각오아래 일대 英斷을 보였다. 새로 임명된 閣僚와 黨職者들도 새 출발의 보좌노력에 더하여 主體的인 책임감을 일층해 나가야 하리라는 것이다.

心機一轉의 國政刷新을 기대케하는 가운데 국민과의 호흡상통을 전제로 安定과 效率이 확인되도록 격려해 마지않는 바이다. 아울러 民心수습과 國民和合의 實이 따랐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偉大한 믿음위의 友邦
—1백년 넘어선 韓美관계의 本質

1백년이라는 세월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풍파가 밀려온 근대의 악몽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긴 과거에서 볼때 긴 세월이라고 할수도 없는 시간이다.

1백년은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있는 두나라 모두에게 막중한 역사적 체험을 말하고있다.

1백년전인 1882년의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쇄국의 문을 열어 미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은 이날 또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동북아시아의 싸움터에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大朝鮮國君主와 大美國 伯理璽天德(프레지던트)및 그人民」이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고, 만일 딴나라가 부당한 일을하면 즉각 서로돕기로 이날 맹약했던 것이다.

잘 알려진것처럼 지금 두나라는 인류역사상 처음보는 세계적인 규모의 권력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네트워크속에서 떨래야 뗄수없는 끈으로 이어져있다.

미국은 우리수출품의 26.6%를 사주는 최대의 손님이요, 우리수입상품의 23.2%를 대주는 최대의 무역파트너다(81년도).

1920년부터 54년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은 일본사람보다 많아서 1천6백37명이나 됐고, 53년부터 79년까지 미국유학 길에 오른 젊은이들이 자그마치 1만4천명 가깝다. 작년말 현재로 6천1백명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있다.

무엇보다도 두나라는 4만의 주한미군이 상징하는것처럼 공동의 적을 막기위해 공동의 전선에 서있는 전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매듭이 서슴없이 말했던것처럼 『그리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우방』이 아니다.

매듭의 이러한 말은 사실 1905년8월 포츠머드회의에 앞서 디어도·루스벨트가 일본에게 한반도를 넘겨줬던 그런 감각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또한 47년9월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를 주장한 포리스탈국방장관이나, 50년 金日成의 모험을自招한 애치슨국무장관의 발상과도 통하는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국으로서도 수출품의 2.2%를 사주는 13번째의 손님이요, 수출입합계로는 세계에서 12번째의 무역파트너다.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핵미사일의 시대요, 우주과학의 시대에 한치도 물러설수없는 국제정치및 군사전략의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뿐만아니라 자유세계 전체의 이해와 안전이 이두나라의 공동노력위에 걸려있는시대가지금의 상황이다.

두나라가 대통령의친서와 경축사절을 교환하는뜻은 이런현실에서 찾을수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오늘 1백년의 고비를 지나는 두나라의 동맹관계가 한장의 문서나, 성명으로 규정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마당의 역사적 현실임을 뜻하는 것이다.

4만의 주한미군이 뜻하는 군사적 동맹자요, 왕복 1백억달러가 넘는 경제적동반자이상의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지난1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특별성명에서 말한것처럼 『오늘날 미국민은 많은 공동의 가치를 한국민과함께 향유하고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같이 기억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가치는 『자유의 분위기속에서만 인간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고 創造될수 있다고 믿는 것』임을 그는 지적하고있다.

1백년전 수호통상조약을맺은뒤 두나라의 관계가 우여곡절을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라의 움직일수없는 동맹관계는 바로 이 「공동된믿음」위에서 자라고 발전해왔던것이다.

엄밀히 보기에 서로 다른 문화적전통과 자연조건속에서 만난 두나라는 이 1백년의 고비를 정치·군사적동맹이상의 공동사회의 같은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다져야될것이다.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맺어진 동맹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문화적 공동성과 사회체제의 공통된기반위에 선 자유세계의 이웃사촌이다.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전체가 두나라의 이 「위대한 1백년」을 그래서 다같이 축복할 것이다.

韓·美修交百돌 全대통령、레이건에메시지
돈독한 友好협력 만족

全斗煥 대통령과 레이건 美 대통령은 21일 韓美修交 1백주년을 맞아 메시지와 親書를 각각 교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레이건 美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본인은 우리 兩國이 오늘날 정치, 안보, 경제, 문화등 각분야에걸쳐 그어느때보다도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간의 확고한 友好협력유대가 修交제2세기 기간중에도계속확대발전되기를충심으로희망한다』고말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를 예방한 韓美修交 1백주년 경축 美측사절단의 렘니처 團長을 통해 보낸 親書에서 『韓美양국은 문화교류에서 큰 이득을 얻고 있으며 양국민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이 위협받을때 이를 수호할 태세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지난1백년간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길뿐만 아니라 제2세기는 더욱 나아질것과 양국민의 번영및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해온 양국관계가 계속 성장하는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張여인수사」발표 疑惑푸는데모자라 국민당聲明

국민당은 張여인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발표에 대해 21일 성명을 발표, 『張여인사건에대한 검찰의 수사전모발표는 중간수사발표와 별차이가 없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에는 미흡함을지적한다』고 말하고 『6천여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한 여인에의해 농락되고 日新, 共榮양개회사의 부담보대출액이 2천여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권력의 개입이나 배후세력이 없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民權黨도 『검찰의 발표는 국민의 짙은 의혹을 풀지 못하고있으며 검찰은 다시 그 배후를 조사하여 돈의 행방을 밝히고 국회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新社黨 朴炳奎 부대변인 =민심을 수습하려는 정부와 집권당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를 계기로 민심이 수습되고 안정되기를 바란다.

임시國會 25일召集 3黨總務 의견일치

民正·民韓·국민당의 3黨총무들은 21일하오 접촉을 갖고 제113회 임시국회를 오는25일 소집하자는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3黨총무들은 113회임시국회의 議題를 「최근의 경제및 사회動向」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會期와 與野간에 爭點이 되어왔던 國政調査權 발동을위한 特調委구성문제등에 대해서 여전히 異見을 보였다.

人事異動

【工業振興廳】 ▲國立工業試驗院管理課長 金玉淵 ▲依願免職 千洛旋

【文化放送】 ▲총무부장 趙錫英(20일자) (비서실장)(21일자)

本社來訪

▲中澤公一씨(報知新聞東京本社廣告局第1部長) ▲山本司씨(株式會社電通副理事)

인터뷰
"衆智모아 民心에 순응하는 黨으로"
權翊鉉 새民正총장 人和에力點 소속원 意思존중

『아직 공식적인 통고를 받은일이 없읍니다. 언론기관에서 사무총장이 됐다고하니 그런 모양이구나 할뿐 잘 모르겠읍니다』

20일 하오 民正黨사무총장으로 임명된 權翊鉉의원(48·山淸·咸陽·居昌출신)은 西大門區北阿峴洞 자택으로 찾아간 기자에게 『아직 임명장을 받지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망설였다.

그는 『갑작스런 발령이라 어안이 벙벙하지만 執權黨의 사무총장이란 자리에 막연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부터 느껴진다』면서 『創黨이념과 黨총재인 대통령의 지도이념을 받들어 黨이 국민속에 착실히 뿌리를 내리는 알뜰한 살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털어놨다.

—이제 民正黨이 뜻밖의 颱風을 겪고 제로베이스에서 새출발을 한다는데 앞으로 黨을 어떤방향으로 이끌 구상인지.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겠지만 黨소속의원들과 1백만 당원들의 衆智를 모아 民心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權총장은 『한사람의 능력은 지극히 한정되어있을 뿐만아니라 偏見에흐를 위험이 있다』고 전제한후 『과오를 범하지않기 위해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黨內 민주주의가 아쉽다는 말도 있었는데.

『일부 인사들이 아쉬움을 느꼈다면 그런 일이없도록 해야되겠지요』라고 말을 잇는 그는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人和』라면서 『소속원의 의사존중이 조직의 생명』이라고 一般論을 역설했다.

—野黨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한 妙方이라도 있는지.

『국회문제는 총무가 전적으로 맡아할것이고 나는 黨의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데만 신경을 쓰겠읍니다』

—앞으로 黨의 운영이 分業化된다는 의미인지.

『黨憲에 충실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대표위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일반당원이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權총장은 『民正黨은 특정인의 정당이아니라 1백만 당원의 정당이기때문에 당원들이 각자의 소임만 충실히 한다면 별다른문제점은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李在武기자】

◇『1백만당원들의 衆智를모아 民心에 순응하는 정치를 펼생각』이라고 말하는 權翊鉉신임사무총장.

政局點描

◆紅一點金正禮保社 "걱정앞선다"

21일하오 留任및新任장관간의 相見禮를하는 改閣후 첫국무회의는 이날하오 4시30분에 시작, 新任위원들의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劉彰順국무총리의 당부말등으로 10분만에 끝났다.

국무위원들은 회의시작 15분전부터 국무회의실에 도착했는데 옥색치마저고리차림의 紅一點 金正禮신임보사부장관은 회의장에 들어가기전 『걱정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고 朴贊兢신임총무처장관은 기자들에게 『수고한다』며 가벼운인사.

한편 閣議가 끝난후 기자실에 들른 李振羲신임문공장관은 『문공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는것이라면서 『국민이 정말로 정부를 믿고 신뢰해야만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리라고 본다』고 피력.

◆前進만내세우다 많은 遺漏남겨

黨職개편하룻만인 21일 民正黨은 주인이 바뀌는 방마다 보따리를 싸고 新·舊간부들끼리 引受引繼, 離·就任式을갖는등새로운채비를서둘렀다. 이날상오 신임黨職者들이 인사를한 첫간부회의에서 李載瀅대표위원은 『우리가 創黨초기에 미숙했기때문에 너무 전진만을 의욕적으로 내세운나머지 많은 遺漏를 남긴데대해 黨총재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하고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원내총무와 협력하여 黨의 기능을 발휘하도록하라』고 당부. 한편물러나는 權正達前 총장은 이날하오 신임 權翊鉉총장과 단둘이서 잠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權前총장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책임정치를 강조해온 입장에서면 民正黨이 도의적·정치적책임을 면할수없다고 생각하여 일괄사표를제출했던것』이라고 그간의 경위를설명. 그는 또 『언제고 물러날때가되면 서슴없이 물러날 각오를 하고있었기 때문에 아무 부담없이 물러났다』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나에게 기대를 걸었던 선거구민이나 친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相見禮위한 첫 閣議10분만에 끝나"

◆일의성취여부는 능력보다 협조에

21일하오 民正黨중앙당사에서 있은 新·舊당직자 離·就任式에서 李대표는 『역사는 왕왕 무엇을 위해 결심한 사람들에게 과제를 남긴다』며 슬기로 시련을 극복하자고 강조. 물러나는 權正達前사무총장은 『創黨이래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어려움을 술회한뒤 『軍門을 떠날때 겸손과 친절을 신조로 하라고 당부했는데 이제 정직과 진실이상으로 설득력있는것이 없다고 말하며 이자리를 떠난다』고 告別辭.

權翊鉉 신임사무총장은 『일의 성취여부는 개인의 능력보다 협조에 달려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맞아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며 창당이념의 구현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보다 적극적인 治癒策필요하다

民正黨의 黨職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民韓黨과 국민당의원들은 5·21改閣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와 거리가먼 改閣이다』고 불만스런반응.

林鍾基총무는 『이번 개각의 의미는 引責과 民心수습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야하는데 어느한쪽도 기대치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遺憾을 표명.

許景九의원은 『국민이 받은 상처가 쉽게 가실수없는 것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治癒策이 필요했었다』고 지적했고, 林在正의원은 『黨職개편의 의지가 改閣에까지 이어지지 못한 「未治한 개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당의 趙一濟의원은 『내각개편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으나 民心수습차원에서 張여인사건에 정치적·도의적책임을 져야될 국무총리와 재무장관이 빠진것은 납득할수없다』고 지적.

치밀하고 과묵한 公安通
鄭致根 법무

치밀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서울지검과 대검공안부장을 역임하는등 검찰내부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12월 검찰대폭인사때 기라성같은 고시8회동기들을 제치고 부산지검장에서 검찰총수로 두단계 승진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장관으로 승진한 행운아.

서울지검공안부장때는 文世光사건을 다루는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5·16민족상을 받았다.

1m77㎝의 장신에 慶南高재학때는 축구팀주장으로 활약한적이 있어 지금도 검찰축구시합때마다 대표선수로 참가한다.

취미는 운동경기관람. 부인 白秀子여사(50)와의 사이에 2남2녀.

合參議長 1년만에 長官
尹誠敏 국방

6·25동란이 터지던해인 50년1월 육사9기로 소위에 임관, 강원 原州·橫城지구전투에서 소총중대장으로 武功을 떨친이래 32년만에 군복을 벗은 百戰勇將. 동기생가운데 제일먼저 4성장군에 승진되더니 합참의장 1년만에 장관으로 기용되는 행운을 거듭안았다.

사단장 駐越사참모장 군사령관등 지휘관을 지내면서 야간전투능력 향상에 남다른업적을 남겼으며 합참의장으로 균형된 군발전과 군사외교에 기여했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취미는 독서와 테니스. 張貞海여사(53)와의 사이에 출가시킨 장녀와 고3짜리2녀등 딸만 둘.

知事 1년만에 錦衣還鄕
朴鍾汶 농수산

80년8월 당시 농수산부 세 차관보(식산차관보는 공석)의 차관승진경쟁에서 탈락, 섭섭한마음으로國保委농수산분과위원장으로 떠났지만 도리어 錦衣還鄕의 轉機가 된셈이다.

강원知事재임 1년동안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林間放牧에 의한 축산진흥과관광자원개발을 끈질기게 주장해와 취임후 농정의 한 방향을 짐작케한다.

73년부터 만5년간 농산국장재임중 쌀증산공로로 훈장을 받을정도로 쌀생산부문에 밝다.

동갑나기 姜玗善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

官界 두루거친 經濟通
金東輝 상공

外事에 빈틈이 없고 책임감이 강한 중진외교관. 高試행정과(6회) 출신인 그는 駐日·駐美대사관 참사관, 歐美·美洲국장, 경제차관보등을 두루거친 경제통으로 76년 문공부차관으로 발탁되면서 外道를 했다가 78년 이란사태가 심상치않자 駐이란대사로 발령받으면서 외무부에 컴백했고 80년5월 외무차관으로 승진했다.

문공차관시절에는 해외공보업무를 궤도에 올려 놓았으며 이란 대사때는 현지의 한국인 근로자를 큰 피해없이 보호하는 임무를 대과없이 해내기도했다.

자그마한 체구에 다부진 인상때문에 「獨逸병정」 「金도끼」등의 별명을 갖고있다. 朴灯順여사(46)사이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취미는 골프.

5·16땐 「反革命」 연루
金正禮 보사

지난날 유신시대때 民權운동가로서 활약했고 지난61년에는 反혁명사건에 연루되어 12년징역을 언도받아 3년을 복역했으며 정쟁법에 묶여 68년까지 정치활동을 중지당했었다. 69년부터 여성유권자연맹중앙본부위원장직을 맡아 3선개헌 반대운동을 펼쳤고 앰네스티국제위원회 한국지부를 맡기도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정당에참가, 성북지구위원장을 역임, 11대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교회 집사를 맡고있으며 매사를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하는 치밀한성격. 부군 尹在洙씨(54·在日·사업가)와의 사이에 18세된 1남이 있다.

勞動운동 26년의 외곬
鄭漢株 노동

노동운동을 시작한지 26년만에 노동행정의 최고책임을 지게된 鄭漢株장관은 순수한 노조통. 국민학교 졸업후 독학으로 제3종 교원검정시험에 합격, 약 4년동안 교직에 있다가 56년 부산 부두노조에 첫발을 디딘이래 전국 부두노조위원장, 노총사무총장, 한국노총위원장등 줄곧 노조에서만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지난 80년 입법회의 의원을 역임한 鄭장관은 당시 노동관계법을 제·개정하면서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막후 활동을 적극 벌였다는 후문 — 소탈한 성격이며 주석에서는 두주불사할 정도의 애주가. 韓富南여사(49)와의 사이에 2남1녀. 취미는 테니스.

5共和國 출범에 큰기여
李熺性 교통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중앙정보부장서리등으로 10·26사태이후 제5공화국출범에 이르는 격변기에 사태를 수습하는데 기여했다. 육사 8기로 4성장군출신. 작년12월28일 예편후 방직협회회장을 지낸것을 제외하면 일선 대대장, 연대장, 주월맹호사단장, 군단장등 군지휘관으로서의 다채로운경력을 지녔다.

1m72㎝의 키에 매우 치밀한 인상. 성품은 강직하지만 일을 추진할때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다는게주위의 평이고 말수가 적은 편이다.

틈틈이 독서를 하는것외에 별다른 취미는 없고일선 지휘관시절에는 바베큐를 무척 즐겼다고전해진다.

新任각료중 유일한 學者
崔順達 체신

신임각료중 유일한 엔지니어출신으로 전기공학자.

서울工大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美캘리포니아 버클리大에서 수학했고, 69년 美스탠퍼드大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76년 미국의 전자기술관계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귀국, 金星社중앙연구소소장, 東洋나이론 전자사업담당상무등 전기 전자기술관계 연구직을 맡아왔다.

공직과 인연을 맺기는 지난81년 과기처산하 한국전기통신연구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의 소장직을 겸임하면서부터.

서울工大재학중 캠퍼스에서 만난 洪惠貞씨(51·서울工大化工科졸)와 결혼, 2남2녀가 있지만 모두 미국유학중이어서 서울엔 부부만 살고있다.

維政의원 지낸 言論출신
李振羲 문공

東亞日報정치부기자, 서울신문정치부장을 거쳐 1·2期 維政會국회의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10·26이후 과도기가 지난뒤 서울신문主筆로 다시 언론계에 컴백, 새시대改革論을 선도했다. 그후 MBC·京鄕신문 사장으로 발탁되었으나 두회사가 분리되자 MBC사장만을 맡아 개혁세력을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등 제5공화국 창조에 큰몫을 했다.

성격이 너무 銳利하고 깔끔하여 주장을 좀처럼 굽히지않으며 지나친 적극성으로 가끔 남과의 충돌도 不辭하는 불같은 일면도 있다. 姜賢姬씨 사이에 1남2녀. 취미는 테니스와 골프.

3星장군 출신의 行政家
朴贊兢 총무처

외모나 언행에서 중후한 성품을 짙게풍기는 3성장군출신 행정가.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육군군수사령관등 일선 지휘관 시절에도 조용한 가운데 매사를 무리없이 처리, 「紳士장군」으로 평이 났었다.

48년 육사7기로 임관, 6·25동란때는 중대장으로 활약했으며 32년간의 군생활에서 乙支무공훈장등 20여종의 훈·포장을 받았다.

특히 군수사령관과 국방부 군수·방산차관보를 지내면서 군수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방차관때 임명된후 군의 전력증강과 국제협력증진에 공헌했다. 安慶姬여사(53)와의 사이에 2남3녀가 있다. 취미는 독서와 테니스.

10년野黨…3選의원 관록
吳世應 정무제1

원만한 목소리가 듬직한 체구와 준수한 외모와는 어울리지않지만 한번 말을 시작하면 熱情的으로 끝을내는 성격. 71년 新民黨 전국구의원으로 政治에 入門했으나 黨內에서 強한개성과 비판적자세때문에 9·10代총선때 落薦,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當選, 再入黨한 경력의 소유자.

5·17후 立法議員을 거쳐 民正黨에 참여, 10여년에걸친 야당생활의 때를 벗었지만 3選답지않게 당내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국회에 들어와 議員外交에 적극참여, IPU, APPU회의등에 터줏대감으로 참석했다. 소아과전문의인 鄭庚子여사(46)와 사이에 1男1女. 취미는 테니스.

學究熱이 높은 陸士14期
安武赫 국세청장

지속적인 국가발전엔 意識의 先進化가 필수적이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1년餘 사회정화위원장직을 수행해온 安청장은 58년 陸士14기로 졸업한후 서울大공대대학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받을정도로 學究熱이 높다. 그동안 사회정화나 의식개혁 차원의 필요성이 제일 높은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금융과 稅制의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이번 국세청장으로의 進入이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評을 듣고 있다.

지난해 4월 야전공병여단장으로 있다 준장으로 轉役, 사회정화위원장을 맡았다. 교회의 집사이기도한 그는 方正子(41)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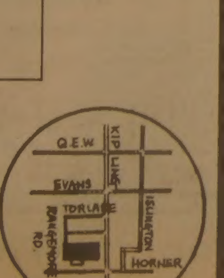
— CASH & CARRY —

- KISKO $4.19
- KISKO KID $3.25
- SNACK IN MOUTH $5.8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올갠

Digital Excellence DX

세대가
DIGITAL CONTROL
로 다가 왔읍니다.

伊에 腐敗公務員 소탕작전

하루3명꼴 놀고먹는 公職者 체포

4백명 國家기만혐의로 起訴

이탈리아에서 부패·무능공무원 소탕작전이 한창이다.
3개월전부터 시작된 이 소탕작전으로 이제까지 33명의 공직자가 감방에 들어갔고 4백여명이 국가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요즘도 하루평균 3명꼴로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체포되고있다.
팔레르모의 보건성에서 근무하는 투이기·시노타라는사람은 공무원생활10년 가운데 5년을 귀찮아서 病暇조차내지않은채 결근했다. 그는 자기사업인 가구점경영에 시간을 쏟았고 상관도 그를 감싸줬다.
한 우체국직원은 하루6시간의 근무를 위해 꼬박 출근을 했으나 정작 일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됐는데 특별근무수당을 3번이나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로마의 피우미시노 공항우체국에는 49명의 근무자가있는데 실제근무자는 4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술집경영 택시운전등의 부업에 정신을 팔고 있거나 그저 놀러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폴리의 경찰관 알폰소·페텔라는 사이프러스의 니코시아에있는 한호텔의 카페일·하우스에서 피아노연주자로 취직, 두달동안 돈도벌고 재미도 보는한편 순경월급및 수당까지 고스란히 타먹고나서 신경쇠약치료를 받았다는 가짜 진단서를 제출했다가들통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는 4백만명의 각급 공무원이있다. 이탈리아 공무원들은 아침8시부터 하오2시까지 하루6시간을 근무한다. 그런데도 농땡이공무원이 너무 많아 골치를 썩여왔다.
평소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루치아노·인펠치 검찰차장은 이에 철퇴를 내리기로하고 경찰기동타격대장인 지아니 니·카네발레에게 놀고먹는 공무원을 조사해서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카네발레는 먼저 공무원들에게 가짜病暇용진단서를 떼준 의사90명을 적발해냈다.
로마와 팔레스트리나병원의 한의사는 안토니오·모젤리라는 鉛管工에게 자기집에 히터를설치케한 댓가로 그의 친구를위해 90일짜리 병가용 진단서를떼주기도했다.
이탈리아의 농땡이공무원은 우체국직원들사이에 많아 우편배달이 세계에서 가장느리기로유명한것도 그때문. 감방에들어간 33명가운데 11명이 우체부였는데 그중에는 근무기간18개월중 3백60일을 농땡이친 안드레아·나탈레 여인도 포함돼있다. 빈센조·크루치오라는 우체부는 출근부에도장만찍고는 아내가 경영하는 보험회사사무실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그의 자동차에서발견된 우편가방에는 어려운국가시험의 합격통지서를포함, 몇달째 배달이안된편지꾸러미가 발견됐다.
당국의 농땡이 소탕령은 이탈리아국민들사이에선 큰 환영을받고있으나 이들을 고객으로하여 장사를해온 상인들에겐 불만이 많다. 특히 관공서 주변의 다방이나 과일가게들은 무시로 드나들던 고객이 끊겨 파리를 날리고있다고 울상이다.

出勤만 하곤 술집등副業

가짜 病暇진단떈 醫師 90명적발

할일없는 공무원들이 심심풀이로 널리애용하던 글자풀이책자도 거의 안팔리고 있다. 몸조심을 하느라 공무원들이 자리를 뜨지않기 때문이다. 어떤 관공서에선 화장실을 가는데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등 과잉단속을 하는가하면 관서근처의 술집이나 도박장에 감시원을 보내고있다.
어떤 관공서에선 오랫동안 자리를 뜨는게 관례가 되다보니 앉아서 일할 책상마저 없어져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는공무원도 생겼다.
로마시 교통순경 오거스토·카포니는 신경쇠약증세로 가끔 집에서 쉬곤했으나 최근들어 단속때문에 매일 출근을 해야했다. 그는 근무중 경찰기동타격대가 그에게로 다가오자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줄로 착각, 화장실로 뛰어들어 권총을 쏘아 자살했다. 【LA타임즈紙】

世界의 社会面

◇숲속의횃불像。美코네티컷州 올드림에사는 힐라리·스미드 양(4)이 이웃집 뒤뜰숲속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횃불복제품을 경탄스러운듯 바라보고 있다。이 복제품은 한때 뉴욕의 예술품 전시회에도 선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은 야간바베큐요리를 할때 조명용으로쓰인다。【AP】

미테랑이 몰고온 「밀레의晩鐘」 熱風

日서 2달전시…1백만몰려

◇防彈유리안에넣어 삼엄한경비속에 전시되고있는 밀레의 「晩鐘」앞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함께 일본에 나들이 나온밀레의 「晩鐘」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있다.
일본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세계3대 名畵는 밀로의 「비너스」,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 그리고 밀레의 「만종」이꼽히고있는데 밀레의 「만종」만이 일본에서 전시되지 못했었다.
이 대망의 「밀레의 晩鐘展」이 최근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의 訪日을계기로 프랑스 미술관당국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공동주최로 실현된것이다.

특수 防彈액자로 作品보호

경비 森嚴…保險金 1백억円

저녁 놀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에 경건히 기도드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근면을 제일의사회적 윤리로삼고 있는 일본인에게 특히 친밀감을 주고있는것같다.
우에노(上野) 공원에있는 국립서양 미술관에서 4월17일부터 6월13일까지 열리고있는 이 밀레展은 관람객에 밀려들어 왔다 밀려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있는데 주최측은 전시기간중 관람객 총수가 1백만명은충분히 넘을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전시회는 「만종」뿐아니라 1848~70년 동안의 쿠르베·마네, 모네등 巨匠들의 명작 30점이 같이 전시되어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옮겨지는 프랑스의 近代화풍을 한눈에 볼수 있다.
이 「밀레展」은 당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측이 개최에 난색을 표했었다.
루브르 박물관측은 밀레의 「만종」을보기위해 멀리서 찾아온 미술애호가들이 장기간 동안의 일본전시때문에 그림을 보지 못하고 실망해서 돌아가는것은 곤란하다면서 밀레의「만종」의장기 出他를 반대했다.
그러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일본전시가 실현됐는데 그대신 「밀레전」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밀레의만종」에 대해서만은 방탄유리액자로 보호, 경비할뿐만아니라, 보험액수도 가장고액인 1백억원을걸도록 프랑스측은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일본주최측은 감마선을 투사해서 범인이 작품에접근하면 부저가 울리는 장치와함께 특수 방탄유리로 액자를짜서 밀레의 만종을보호, 전시했다. 명화의 나들이는 이처럼 까다롭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㊼

「모란등기」는 중국소설 전등야화(剪燈夜話)에서따온 괴기물이다.
16㎜ 발성영화 「모란등기」는해방후 우리영화가우리손으로토키화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었고 연일 만원사례를냈다. 기마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극장앞은 혼잡을 이루었다. 1947년 5월이다. 이 때가 바로 내 영화편력에서 가장 기념할만한 전환기라 하겠다.
金正革(평론·납북) 尹逢春(감독·작고) 安鍾和(감독·작고) 安夕影(감독·작고)제씨들이 와서 작품을 논하기전에 해방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토키영화에 대하여 입을모아 찬사를 보냈다. 일간신문들도 내 용기를 배가해줬다.
이당시 영화과학연구소에서는 영화「불멸의 밀사」(金永淳감독、金正煥촬영)、「바다의정열」(徐廷奎감독、金正煥촬영)、「고구려의 혼」(林雲鶴감독、朴世永촬영)

映畵편력 절정기

崔寅奎등 名監督들모여 처음만든 「토키」에 찬사

「풍랑」(崔玄감독、沈載興촬영)등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제작됐고 녹음에 자신을 얻은 M·S·L은 첫 음악영화 「푸른언덕」을 시도해서 1948년8月15일 국도극장에서 개봉했다. 玄人, 黃霖, 尹一峰등이 출연했고 음악은 黃文平이 담당했다. 金昌根(감독·작고)각본, 金正煥(납북)촬영, 새한영화사제작의 「푸른언덕」은 해방후 처음으로 시도된 플레이백과 동시녹음으로 완성된 뮤지컬 드라마라는 점에서 우리영화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수립한 셈이다. 내가 창설한 영화과학연구소의개가며 녹음기사 조종국의 수훈이라하겠다.
이무렵 계몽영화사에서는 이구영감독의 「안중근 사기」, 남양영화사에서 李圭煥감독의 「똘똘이의모험」, 고려영화사에서 崔寅奎감독의 「자유만세」등이 제작되어 오랫동안 우리영화에 굶주린 관객들의 환호를 샀다. 반일감정이 팽배하던 이 시대에 윤봉춘감독이 만든 「윤봉길의사」 「3·1 혁명기」 「유관순」등의 레지스탕스영화들은 흥행에도 재 성공을 거두었을뿐더러 시대의 민중심리를 잘 포착한 작품들이다.
申敬均감독 (작고)의 「새로운 맹세」에서 여배우 崔銀姬가 탄생했고, 이규환의 「똘똘이의 모험」에서 韓銀珍이 데뷔했다. 이무렵의 큰 수확이라 하겠다. 가장 왕성하게 작품활동에 정열을 쏟은 분은 이규환 감독이다. 1946년 「똘똘이의모험」을 위시해서 「민족의 새벽」 「그들의 행복」 「갈매기」 「돌아온 어머니」등을 연출했고 특히 영화「갈매기」에서는 프로듀서 李詰爀(작고)과 여배우 趙美鈴(재미)이 데뷔했다.
누구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제작회사를 설립할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영화사는 우후죽순 같이 솟아났고 영화인도 홍수같이 탄생했다. 많은 영화작품이 두서없이 생산되었고 영화계의 부조리와 비리도 횡행했다. 영화의 ABC도 모르는 시정배들이 도박적인 흥행의 꿈을 노리고 제작에뛰어드는 난센스가 속출했다.

◇필자가 감독한 영화 「아리랑」에서의 趙美鈴과 尹一峰。

「不滅의밀사」등 4개作品도 제작

48년엔「푸른언덕」 同時錄音완성

극도로 필름이 부족했던 이 시대의 영화계에는 웃지못할 희극들도 많았다. 필름이 귀하니까 암거래가 성행했다. 하루는 점잖은 분이 내사무실에 필름을 팔러왔다. 그는 나에게 오버자락을 들어보였다. 그의 몸에는 노란 포시필름이 연자새처럼 돌돌 감겨있지 않은가. 그것을 사라는 것이다. 열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단속에 걸릴것을 우려한 나머지 필름통을 열고 필름을 몸에 감고온 것이다. 그필름은 빛이들어가서 이미 쓸모 없게 된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난센스는 허다하게 많았다. 16㎜나 35㎜ 생필름은 금값으로 둔갑했던 시점이다. 이러한 무지속에서 영화의 이론이나 과학적 탐구라는것은 우이독경과도 같았다.
토키영화 「모란등기」에 자극을 받은 최인규감독은 1948년봄에 동시녹음으로 「죄없는 죄인」을 제작했다. 그 촬영과정을 나는 시종 지켜봤다. 카메라·부스대신 촬영기를 담요로싸고 마이크의 잡음을 방지했으나 안국동 尹潽善씨댁 정원에서 촬영하던때는 비행기가 저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폭음이 마이크로 들어와서 촬영도중에 N·G를 낸일도있었다.

한국일보
533·2361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記者의 눈

힝클리의 裁判

『존·힝클리는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정신병자흉내를 내고 있을 뿐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요즘 워싱턴의연방지방법원은 연일 검사와 변호인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30일 레이건 美 대통령 암살 미수혐의로 체포된 힝클리에 대한 재판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로저·아델만 수석 검사는 『그는 사전에 짜놓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에따라 범행에 착수했다』고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들 앞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또 80년 10월2일에 있었던 카터 前대통령의 오하이오州 선거유세 장면을 담은 ABC방송의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카터가 군중들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힝클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군중들에 밀려 좀더 안에 들어왔다 벗어났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주일뒤 힝클리는 카터가 유세중이던 내시빌市의 공항에서 권총3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힝클리의 정신상태분석을 의뢰받은 하버드의대의 정신병학자 데이비드·바에르교수는 『힝클리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능력이 절대로 없다고 믿는다』면서 『그는 저격하던 날도 영화배우 조디·포스터양을 찾아가 그녀와 자신을 쏘아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출할지, 레이건을 쏘러가야할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힝클리의 부모들은 힝클리를 여러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지만 입원생활이 오히려 그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는 담당의사의 설득에 따라 입원을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힝클리가 심신상실자로 판명되면 그는 무죄를 선고받게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그가 쏜것은 대통령이라는 구체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허상일 뿐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힝클리는 이미 사건전에 미국이라는 선진산업사회의 피해자일 것이라는 느낌이다. 대중영화예술과 자유로운 총기판매의 분위기속에서 가치관의 혼동을 빚은 절벽증있는 한 청년. 타임誌는 그래서 힝클리를 가리켜 『혼자 범인경주에서의 패자』라 칭하기도한다. 【朴來富기자·外信部】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㊿1

아닌게 아니라 오목이는 꿈이 모두 벼랑 끝에 서있는 것처럼 망막하고 보잘 것 없어 보였다.
인재는 그녀가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들 때 감쪽같이 벼랑 밑으로 떠다밀수도 있을 것같은 잔혹성이 자신 속에서 스멀대는 걸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입맛 없이 다만 게걸스럽게 덜 익은 고기덩이를 씹으며 흘금 흘금 오목이를 건너다보았다. 오목이는 벌써부터 칼질을 그만두고 포크로 야채를 먹는둥 마는둥 하면서 한손으론 가슴에 놓어진 은행알만한 은표주박을 주무르고 있었다.
은줄 끝에 은표주박이 달린 별로 값비싼것같진 않은데도 고풍스러워보이는 목걸이는 오목이가 어떤 옷에든지 하고있는 유일한 액세서리였다.
집에서 입던채로 놓네로 심부름나갔다가 인재를 만나 씻을수 없는 일을 당한 날도 오목이는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인재는 짐승처럼 그녀의 몸을 더듬다가 목덜미에서 느낀 가냘픈 은줄의 감촉이 문득 인술에 되살아나면서 못 할 노릇 했다는 뻐은 후회에 사로잡혔다.
설사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그가 전적으로 질수 있다고 해도 그가 한 못할 노릇까지 지울순 없을것 같았다.
『예쁜 목걸이군.』
화제가 끊긴 사이가 납덩이처럼 부담스러워 무슨말이든지 해야할 것 같았다.
『비싼 건 아녜요.』
오목이의 망막하고 어두운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비싸보인다곤 안했어요.』
『딴 목걸이도 여러개 있어요. 그렇지만 난 이걸제일 좋아해요.』
『미스 최답군.』
『칭찬인가요? 흉 보는 건가요?』
『흉은? 몸건값만 보고 거기 맞춰 집착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렇다고 이게 아주 싸구려인줄 알진마세요. 이건 적어도 골동품이니까 은값만 갖고 따질순 없어요.』
오목이의 얼굴에서 시틈이 엷어지면서 밝고 자랑스러워졌다.
『호오, 그래. 미스 최 골동품도 볼줄아나?』
인재는 장난스럽게 감탄했다.
『볼줄은 몰라도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 집이 서울에서도 행세하는 대갓집이었을 적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딸의 돌잔치때 염낭에 달아주던 거였다니까요. 할머니가 내 돌때 달아주셨는데 그건 또 할머니 돌때 증조할머니께서 달아주신 거였다니 얼마나 오래된건지 알만하잖아요』
『은 값이나 골동품 값을 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전임엔 틀림이 없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말야.』
『알아줘서 기뻐요.』
『그러니까 본디는 노리개었던걸 목걸이로 꾸민거로군.』
『뭐 꾸미고 말것도 없어요. 은줄을 사서 꿴것밖에. 나도 이 다음에 내 딸에게 물려줄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부터는 노리개로서가 아니라 목걸이로서 물려주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는 내 마음대로 쓸모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오목이가 밝게 웃으며 동의를 구하더니 가슴께에서 만지작대던 은표주박을 손바닥에 올려 놓고 새삼스럽게 곰곰 들여다보고있었다. 인재는 그런 오목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流星의 賦 <38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이 天下에 떨치다 ⑥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느니라. 최선의 방책으로 적과 더불어 싸울 각오를 해라. 우리의 뜻이 지성이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겠는가. 계남은 이미 의병을 일으켜 떠났고 제는 상갑을 따라갔다고 들었으니 응분의 일은 할게다. 진과 전과 되는 계남과 제만 못하긴 해도 지성은 있는 놈이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 이 안성에서 근왕보국(勤王報國)의 기치를 높이 세우자』
홍자수의 준절한 말은 실의에 가득 찬 이덕남을 분발케했다.
이렇게해서 안성은 홍자수를 사령관으로 이덕남을 참모로해서 군력(軍力)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계남이 충주、대탄、광주、과천、부천등지를 전전(轉戰)하여 안성에 일시 귀착했을때는 의병의 수가 천여명으로 붙어있고 사기도 또한 왕성했다.
계남과 덕남은 오랜만의 재회를 기뻐하고 날이 새도록 전략과 나라의 앞일을 걱정했다. 장병의 부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제하고 안성남방 십리허에 토성(土城)을 쌓아서진지를 구축하는것이 좋겠다는의견이 일치된 것도 이날밤의 일이다. 지금 「홍장군진 고개」 「이장군진 고개」란 이름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무렵 왜적은 죽산、양지、용인에 걸쳐 삼대진(三大陣)을 치고 호시탐탐 안성에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덕남은 스스로 선봉이 되어 죽산 좌찬령(佐贊嶺)까지 나가 적에게 기습을 걸어 십여명을 사살하기도 하여 적의 기세를 꺾은 적도 있었다.
계남은

『안성을 지키는 것은 곧 부모형제를 지키는 일이오、나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며 안성에 머물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자수는
『너는 나가 적을 무찔러 대공(大功)을 세워야 하느니라』
하고 권했다.
그 권고로 계남은 광교산을 본거지로 하여 수원성일대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 터였지만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가 있는 안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만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7월 20일께부터 돌연 안성과의 연락이 끊겼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계남은 척후를 내어 일대를 살피게 했다.
『왜적이 광교산의 용인、안성측을 몇겹으로 포위하고 개미 한마리 드나들 틈이 없읍니다』
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로구나』
계남이 이상한 예감을 가졌다.
후속된 척후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들은 포위만 하고 있을뿐 거기서 일보도 전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계남은 대천에서의 전투에 대한 무슨 보복이 있을것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지만 포위만하고 전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아심을 품었다.
그런채로 사흘을 지내고 나흘을 지냈다.
『우리 편에서 놈들을 공격하면 어떻겠읍니까』
하고 신복이 건의했다.
『우리는 지형을 교묘히 이용할 수가 있으니 쉽게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조인식의 의견도 있었다.
『아냐, 놈들의 의도엔 뭔가가 있다』
고 계남은 궁리하기 시작했다.

海外토픽

美國人自負心강해

★갤럽, 職業만족도 조사

서방국가들 가운데 보수적 정치성향이 가장 강하고 직업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갖고있는 국민은 미국인이며 에이레국민은 가장 행복한생활을 누리고있는것으로 최근 미 갤럽 여론조사연구소가 서방15개국을 상대로 실시한 가치관조사결과 19일 밝혀졌다.
미국·영국·일본등 서방15개국에서 각기 성인 1천2백명을 무작위 추출, 실시한 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또 일본·서독·이탈리아 국민이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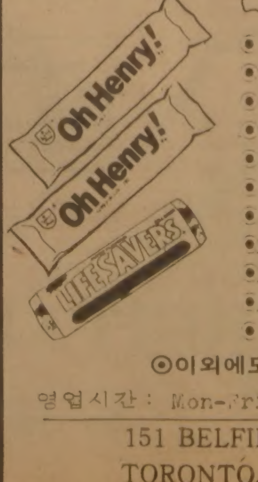
특별 성회

강 사 : 나 운 몽 목사
(한국오순절성결회 감독
복음신보사 사장)
일 시 : 1982년 6 월 4 일(금)부터
3 일간. 매일저녁 7 시30분
장 소 : 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
연 락 처 : ☎ 762－1495
☎ 630－0735
☎ 536－9545

오순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세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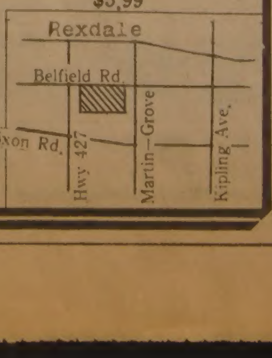
Φ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 오·헨리 Reg 36's	$9.19
● Cadbury Thick Bars 36's	$13.07
● Rowntree Dairy Box 1Lb	$9.73
● Black Magic 1Lb	$10.61
● Life Savers	$4.09
● Hershey's Reg.36's	$8.99
●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 POP Wilson Product	$5.59
● Coke.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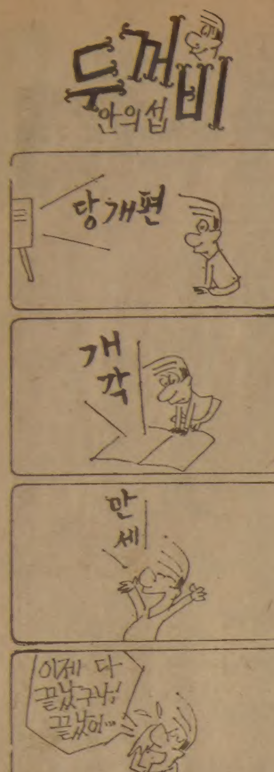


제2회 재캐나다
한인친선탁구대회

시 상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
장 소 : 994 CARLAW AVE. (WEST WOOD JR. HIGH SCHOOL)
CARLAW AVE &EST WOOD
경기종목 및 참가비 :
단체전 (4단1복) $30.00
남·녀개인전 $5.00
개인복식 $7.00
시 상 : 단체전 : 우승, 준우승
개인남·녀 : 1.2.3등
개인복식 : 우승, 준우승
연락처 : 송광호 (533－2361)
김동천 (243－0522)

주최 : 재캐나다 탁구협회

후원 : 재캐나다대한체육회, 미도파백화점, 브랜든스포츠, 거북이선물센타, 빅·세븐선물센타, 한국관, 동양식품 연합상사



OMEGA
세련된 디자인 정밀한 시간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零細商노리는 「直販사기」극성

有名회사 代理店미끼…계약금만 챙겨

불황타개를 미끼로 영세상인들을 노리는 직판계약사기가 극성이다.

이같은 사기는 해마다 4~7월이 가장많은 편이지만 종전에 유령회사를차려 싼값에 물건을대준다고 속이던것과는 달리 유명회사의 대리점까지 끼어들고 있는데다 품목과 규모도 대폭확대돼 유지·세제류·의류·가전제품을 망라하고있다.

이들의 수법은 『이장사만은 틀림없이 돈벌수있는 안전한사업』이라며 유혹, 어수룩한 상인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않은사이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것. 상인들은 계약후에 받은물건이 불량품이거나 당초의말과달리 까다롭기짝이없는 조건을 내세우는바람에 해약을 하려 찾아가보면 상호·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해약요구는 계약위반』이라고 되려 덮어씌워 결국 계약금을 떼이기 일쑤이다.

서유상 崔正君씨 (36·서울 永登浦區 新道林洞 296의52)의경우 지난2월17일 S알루미늄과석유전자레인지판매대리점계약을 맺었다는 종합상사 서울사무소의 외판원 2명이찾아와 新林洞구역 판권을 주겠다고해 계약금40만원을 지불했다. 잔금 2백60만원은 물건을인수한후 1개월이내에 갚기로했으나 약속된 5일후 물건을배달해주지 않고 『계약서는 보관용』이라며 잔금2백60만원을 모두가져와야 물건을 내주겠다고말하더라는것.

鄭錫和씨 (38·서울江西區 新亭洞산13의112)도 똑같은 경위로 계약금20만원을 떼었다.

그뒤 종합상사는 부도가나 없어지고 S알루미늄측은 이같이 다툼이있는 대리점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인수한바없다고 말하고있다.

핫도그를 만들어파는 金용희씨 (27·경기南楊州郡 九里邑水澤2里569의23)는지난달29일 더원상사의 외판원에속아 물품사진만보고 10만원짜리 핫도그제조기를 샀는데 한석재로 만들어진데다 1시간도못가 식용유3병이 모두 소모될정도의 불량품이어서 똑같이 피해를본 주민 2명과함께 지난1일 東大門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물건값은 되돌려 받지 못했다.

회사원 金일홍씨 (44·서울 九老區九老5洞551의101)는 모컬러현상소 계약을 맺었다가 3년째 20만원을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80년3월 2년기간으로 모컬러 東南현상소와 계약을 맺었는데 필름을 가져가지않아 회사가있는 聖水洞에 찾아갔으나 이미 상호가 「대화」현상소로 바뀌었으며 지난3월7일에 갔을때는 또 「대림」으로 변경돼있었다.

대림은 『東南과 우리는 관계가없다』며 『지정현상소계약은 서울시내7군데밖에 되지않는데 무슨소리냐』며 바보취급을 하더라는것.

이들은 또 해약을 요구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당초의계약금보다 훨씬적은돈으로 합의를보자며 흥정, 피해자들이 제풀에 떨어져나가게하는 수법도 쓴다.

李재호씨 (27·서울九老區 加里峰洞25의47)는 지난 2월2일 源洋식품과 사와·엘더베리등 음료 직판계약을맺고 48만원을 지불, 나머지 2백52만원은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했으나 회사측은 다시 1천5백만원을 낼것을요구하고 대지건물등기부등본등 7가지나되는 까다로운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싫으면 7만원에 합의를보자』고 배짱을 퉁기고있다.

서민들의 법률구호기구인 YMCA시민중계실에 의하면 4월부터 5월20일까지 이같은 피해자들의 구제진정이 35건에 이르고있다.

시민중계실관계자는 이에대해 계약을 맺을때 외판원의 감언이설만 믿지말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것과 신용있는 회사인지의여부를 알아본 다음에계약,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할것을 당부하고 있다.

【任喆淳기자】

미스코리아 證書전달

82년도 미스코리아 증서전달식이 20일낮12시 한국일보社13층에서 열렸다.

이날 張在九한국일보社사장은 미스코리아眞 朴仙嬉양(19)에게 증서와함께 상금 1천만원을 전달했고 앙드레 金의상실에서는 미스코리아 5명전원에게 국제대회용 드레스들을선물로 기증했다.

미스코리아에게 수여된 상금및 특전은 다음과같다.

▲朴仙嬉(眞·19) 1천만원(국제대회출전경비·해외유학포함) ▲崔誠允(善·19) 3백만원 ▲李顯珠(美·18) 2백50만원 ▲鄭愛姬(미스한국일보·21) 2백만원 ▲金美善(미스태평양화학·21) 2백만원

추모예배후 籠城 主動者 4명구속

光州경찰서

【光州】光州경찰서는 21일 전남노회 교사위원회 총무 김경식목사(45·康津郡康津邑南城里115)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장 김영진씨(36·〃66) 서울성공회신학생 유모군(19·서울東大門區 祭基1洞) 백혜진양(24·무직·서울恩平區 碌磻洞29의24) 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鄭】

새主役들에「民心수렴」기대

「5·21 대폭改閣」맞은 官街표정과 국민의 바램

"회복시급한 국민경제의 損失 權力만능·拜金 단호追放해야"

검찰의 수사최종결과가 발표되는것을 기다렸다는듯이 「張여인사건」으로 멍들고 찢긴 정국을 수습하기위한 본격적인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張여인사건」의 불똥이 튀었던 民正黨의 핵심부가 개편된데 이어 21일아침 「수사」의정치적 책임자였던 李鍾元법무장관등 11명의 각료가 자리를 물러섰으며 그자리에 「새로운 얼굴」들이 「수습정국」의 주역으로 대신등장했다. 국민들은 광범위하게 국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멍든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조치에서 「제5공화국의 2期」가 단호한 결의아래 출범하는것을 지켜보았다. 국민들도면목을 바꾼 새각료들이 「張여인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국민경제의 손실을회복하고 물거품처럼 흔들린 개혁의흐름을 다시되찾아주며 권력만능주의, 배금주의사상을 추방하는 경연한 정부가 되달라고 당부했다.

"제5공화국의 제2期가 出帆했다"

◇新·舊 두長官의 談笑 이·취임식에앞서 장관집무실소파에 나란히 앉은 신임 金正禮 보사부장관과 떠나는千命基前장관。 이들은 응접세트의 「주인」자리를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객석에 나란히 앉았다.

법무부……張여인사건수사 마무리와 함께「정치적책임」의 장관이 물러나고 「수사책임」의 검찰총장은 장관으로 승진된데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엇갈린 표정들. 전날부터 장관경질설이 나돌기는 했지만 막상 李鍾元장관이 경질되자 검찰간부들은 대폭개각이란면에서 이번사건에 책임을지고 해임됐다고는 보고싶지않다고 애써부인하면서 李장관이 어려운시기에 법무영역개척에 애를많이 썼다고 말했다.

鄭致根총장이 장관으로 승진된데 대해서는 「官寧사건」때도 그랬지만 총책임을 장관이 진것이 아니냐면서 오랜만에 총장이 장관으로 내부승진하는 종전의관례를 되찾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하기도했다.

검찰의 경사스런 분위기와는 달리 李鍾元장관이 물러난 법무부는 침통한 분위기. 李장관은 이날아침 8시45분께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특히 張여인사건때문에 모두들고생했는데…』라고 말끝을흐렸다는것이다.

국방부……상오9시부터 1시간동안 周永福장관이 주재한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은 회의직후 개각 발표를 들었다.

신임 尹誠敏장관은 합참의장 자격으로 지난10일 출국, 미국에 머물고있는데 예정(6월1일)을 앞당겨 귀국할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직원들은 비교적 장수(2년반)를 누린 周장관의 퇴진을 「명예퇴임」으로 풀이하는 한편 한지붕아래서 2명의 장관 (尹誠敏국방, 朴贊兢총무처)이 나온 것을 경사로 받아들였다.

周장관은 21일 하오 잔무정리를 했으며 尹장관 취임식도 尹장관의 귀국후에 있을예정.

농수산부……高建농수산부장관의경질은한마디로 『의외』. 이번개각 동기중의하나인 張여인사건과 관계없음은 물론 「外米과다도입」의 직접적인 책임을 그에게 물을수도 없는 처지이기때문. 더구나 지난한해 농사가 3년흉작끝에 평년작이상을 기록했고 올해의 벼농사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으니 더욱 의아스럽다는 분위기였다.

高장관은 상오10시25분 TV에서 개각특보를 내보내고 있을때도 청사를 떠나 경기 楊州지방의 모내기상황을 둘러보고있었다.

모내기현장에서발령소식을 듣기는신임朴장관도마찬가지.

상공부……인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데다 徐錫俊장관이 訪美중이어서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들. 徐장관은 20일낮12시(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를출발 귀국길에 올랐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비행기를갈아타려던참인 하오1시35분께 장관비서실로부터 장관경질소식을 듣고 『후임장관 취임에 지장없도록 사무실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편 신임金東輝장관은 외무부서 국제경제차관보를 지내기는 했지만 5·16이후 상공장관으로서는 첫비경제부처출신인데다 성격이 깔끔한편이어서 상공부관리들을 긴장시키고있다。金·徐장관은 모두 서울文理大 政治科동창인데다 집도 반포아파트94동 104호 (金장관)와 211호 (徐장관)로 이웃간이다.

보사부……이날 퇴임하는 千命基 보사부장관은 상오8시30분 환경청의 연례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집무실로 돌아온뒤 혼자서 라디오 뉴스를 통해 자신의 퇴임소식을 알았는데 뉴스가 끝나자 비서실에 모여있던 국장들을 불러들여 얘기를 나눴다.

千장관은 이보다앞서 20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하고 돌아온후 기자들과만나 이번개각들을 몰고온 李·張부부사건에대해 『참으로 엄청난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관부임소식이 전해진21일하오 보사직원들은 대체로 『전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신임장관의 지휘스타일을 탐지하기위해 金正禮장관과 지금까지 업무상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을 수소문하기도했다.

노동부……노총위원장인鄭漢株씨가 새장관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부들은 장관실로 달려갔다.

이날 權장관은 상오10시30분부터 장관실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세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공보관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경질소식을 전하자 방안에 있는 TV를 켜놓고 개각소식을들었다.

노동부직원들은 權장관이 오는 24일 ILO회의에참석하기위해 출국준비를 해왔고 21일하오4시에는 靑瓦臺에 출국인사를 할예정이어서 장관의경질을 『매우 뜻밖』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신임 鄭장관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의 기수가 노동행정의 총책을 맡게돼큰변화는없을것으로점치고있다.

교통부……지난 4년동안 7명의 장관을 맞았던 교통부간부들도 尹子重장관의경질에 의외라는 표정.

尹장관도 경질소식을 듣고 착잡하고 숙연한 표정을 짓고 산하 청장·국장급 간부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새로 오는 李熺性장관은 참모총장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며 성격이 온화하다』고 말하고 기자실에도 들러 『군인으로서 공군참모총장을 지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여유를보이기도했다.

문공부……李光杓문공장관은 비서가 짐을꾸리는 동안 집무실에서 개인소유자료를 챙기며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들과 2년간의 장관재직기간을 돌아보는얘기로화제를삼았다.

辭表도착 1시간만에 새名單 대변인에口述

靑瓦臺……5·21대폭改閣은 21일 상오 劉彰順국무총리가 전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받고 청와대를 방문한뒤 1시간만에 발표됐다.

全斗煥대통령은 이날상오 9시24분 서재에서 劉총리로부터 내각 일괄사표를 제출받고 李雄熙靑瓦臺대변인을 불러 개각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보며 李대변인에게 口述.

개각명단을 받아적은 李대변인은 1시간뒤인 10시22분 靑瓦臺기자실로 들어와 『全대통령은 상당수의 국무위원을 경질했다』며 개각내용을 발표.

中央廳……內閣一括사표제출—改閣이단행된 21일상오 중앙청 안팎은 이른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11명의국무위원등 13명을 更迭한 21일의 개각발표전까지 劉彰順국무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아 비서진등 주변사람들을 궁금하게했다.

자신의 취임이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劉총리는 일괄사표작성, 제출 과정에서 한가닥흐트러짐이 없는 태도였는데 劉총리는 이날도 평소와 똑같이 상오8시40분중앙청에 등청, 비서진과 정례간부회의를 열다 9시20분청와대의 연락을받고 중앙청을 떠났다.

劉총리가 청와대로 떠난뒤 중앙청주변은 종전의 관례와 달리 총무처장관이 수행치않아 「劉총리 유임·金총무처장관퇴진」이 점차굳어지고 있을때인 상오10시께 돌아온 劉총리는 질문공세를받고 이때서야 『11명이 바뀌게 될것』이라고 대답하고서도 자신의 거취에대해선 개각발표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

이에 앞서 劉총리는 출근직후 金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전네받고 잠시 밀담을 나누기도.

부총리……金부총리는 21일 정시에 출근, 간부들과 張여인사건, 개각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유임이 확정되자 몰려드는 원내간부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면서도 韓美경제협의회위원접견, 농수산부로 전보된 曺京植전예산실장과의 오찬등 당초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밝은표정으로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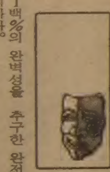
재무부……羅雄培장관의유임이 확정되자 재무부는 안도의 한숨.

羅장관은 취임이래 재정·금융·세제면에서 많은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에따라 실무진에서는 마무리작업이 한창인데 장관이 유임됨에따라 마음놓고 하던일을 계속할수있게 되었다。그러나 재무부는 상당한폭의 후속인사가 있을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큰 선배」

張여인 사건으로 물러난 李鍾元씨



후배검사들로부터 검찰에 남은 마지막 「큰선배」로 불리던 李鍾元前법무장관(56·사진)。그가 귀거래사를 읊은 21일 하오4시의 이임식장은 법무부와 검찰간부들이 검찰의 현위치를 새삼 음미하며 착잡해진 자리였다.

지난해 4월10일 취임, 재임기간 1년1개월여。許亨九前검찰총장이 퇴진한 지난해12월이후 검찰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을때는 검찰기능의 궤도수정이라는 뒷공론도 많았지만 역시 그는 검찰의 방패막이었다。그만큼 그는 실무형만이아닌 정치적 센스를 두루 갖춘「거물」이었다.

공인으로서나 사인으로서나 그는 1백%의 완벽성을 추구한 완전주의자다.

부하검사들을 철저하게 부린다해서 「시어머니」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그의 밑에서 일을하면 엘리트가 된다는 일화를 지닌 보스가질의 검사이기도했다.

20일에 있었던 張여인사건의 검찰수사발표문안작성을 독려하기위해 일괄사표제출이 결의된 국무회의조차 불참하며 작업을 지켜본것도 바로 그의 字句하나 하나에까지 신경을쓰는철두철미성때문이었다.

그는 장관 취임사는 물론이고 그많은 검사장회의 훈시내용까지 직접 썼고 이임사도 물론이었다.

"最善을 다했다는 自負가집시다"

그는 부하들에게 늘『신문기자처럼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쓰라』고 주문했다. 사인으로서 그는 법학박사에 공인회계사며 저술가. 또 기계체조가 수준급이고 수상스키와 철봉에도 능하며 태권도유단자인 만능스포츠맨이다.

지난해 「연탄사건」이후 검찰수뇌진에 세대교체를 단행할때 그가 『국가최고 정책목표에 부응하기위한 「일사분란한 검찰운용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것도 변화된상황하에서 검찰의 자구책을 위한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의 퇴진은 단순한 한각료의 경질이라는 의미이상의 뜻을지닌다. 「파격」「혁신」「대개혁」등의 강한 용어로 표현되는 풍랑을 겪어온 검찰이 그의 퇴진을 착잡한 시선으로바라보는것도 당연하리라.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남긴 마지막말은 이런것이었다.

『고생을 너무시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모두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를 가집시다』 公人으로서의 李장관이 그랬듯이 私人으로서의 李씨도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변호사일것이다.

【崔奎植기자】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핸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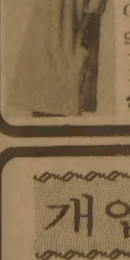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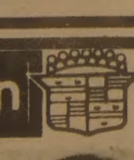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닭튀김 스테이크가 있는데" "있구말구요" "그건 뭐와 함께 나오는거요?" "나의 진실한 사과와 함께죠"

◇싱글 팝 베스트10

▲1 (1) =「Ebony & Ivory」(폴·매커트니& 스티비·원더)
▲2 (2) =「Don't Talk To Strangers」(리크·스프링필드)
▲3 (3) =「Main Theme From Chariots of Fire」(반젤리스)
▲4 (7) =「I,ve Never Been To Me」(찰렌)
▲5 (6) =「867-5309 Jenny」(톰·튜톤)
▲6 (9) =「The Other Woman」(레이·파커·주니어)
▲7 (5) =「I Love Rock'n'Roll」(존·제트&블랙하트)
▲8 (12) =「Don't You Want Me」(휴먼·리그)
▲9 (4) =「Freeze Frame Flame Thrower」(J·게일즈밴드)
▲10 =「Did It In a Minute」(대릴·홀&존오츠)

放送社 자체사업弘報에 쇄기

放審委 "시청에 혼란준다"

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周鎭)는 제14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프로그램의 홍보방송들을 적정선에서 요구하는 「무정방송사의방송프로그램 및 자체사업에대한과잉홍보방송억제」에 관한 일반권고를 결정, 각방송사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스파트는 물론 기본방송순서를 잠식하면서까지 프로그램 및 자체사업의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있다고 지적, 공영방송의 자세에 어긋나고 시청에 혼란을 줄 우려를 들어 홍보방송을 억제하도록 각방송공사에 통보한것이다.

팝토픽

에보니·아이보리 黑白의뜻

매커트니와 원더 두엣으로 불러

"人種문제 해결에 도움된다면"

★…캐시·바스선정 텐톱 팝 1위에 올라있는「Ebony & Ivory」는 폴·매커트니와 흑인가수 스티비·원더가 듀엣으로 불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폴·매커트니가 존·레넌의 추모 앨범으로 제작한 앨범「Tug of War」에 수록돼있는「Ebony…」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있다. 에보니와 아이보리는 피아노의 흰색 건반과 검정색 건반을 말하는데 이는 흑백인종문제를 의미하는 것. 매커트니는 이곡을 5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인종문제에 대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던 때.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긴장감이 해소된것은 아니라고 매커트니는 말하고 있다.

매커트니가 스티비·원더를 파트너로 택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스티비를 찾았을때 그도 매우 흥미를 느꼈고 같이 노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매커트니는 말했다.

◇폴·매거트니

◇스티비·원더

에보니…2週째 1位차지

美 캐시박스선정 텐톱팝

폴·매커트니와 스티비·원더 듀엣이 노래한 Ebony & Ivory가 2주째 美國싱글팝 레코드차트 1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경화 「불의전차」의 주제곡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Ebony…」는 英國차트에서도 3주째 1위를 지켰으나 이번주 영국차트에서는 6위로 밀려났다.

캐시박스선정 텐톱팝의 2위와 3위는 지난주와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순위는 소폭의 자리바꿈을 했다.

이번주 텐톱팝에 새로 낀 곡은 휴먼·리그의 Don't you want me. 지난주 12위에서 이번주에는 8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컨트리 웨스턴 싱글차트의 톱은 지난주 3위였던 웨일론 & 윌리의 「당신을 기쁘게하기위해」가 차지했다. 【AP】

꼬리달린아이 出産

★美醫師가 醫學誌에보고

짐승과 같이 꼬리를 가진 아이가 출생, 인류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 의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미국아동병원의료센터의 프레드·레들리박사가 최근 밝혔다.

레들리박사는 그같은 사실을 의학관계전문지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誌에 발표했는데 이와관련, 20일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꼬리를 가진 아이가 출생할 확률은 약10만명중 1명꼴이라고 주장했다. 【보스턴=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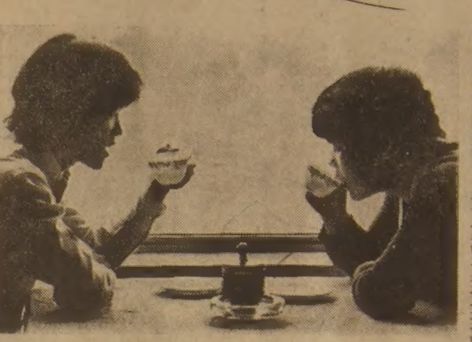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건강페이지

코피 하루 4~5잔 이상은 해롭다 홍차

코피와 홍차 성분표

구 분	코 피	홍 차
수 분	8·0%	3·8%
단 백 질	8·5%	무시할정도
지 방 질	10·1%	〃
탄수화물	50·0%	80%
섬 유 물	18·0%	—
회 분	—	6·1%
카 페 인	1·3%	2·5~5%
탄 닌	—	7~14%


◇코피와 홍차는 하루 4~5잔이상 마시지 않는것이 건강에 좋다.

코피와 홍차, 설탕만큼 현대인들의 사랑을받는 기호품도 없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샐러리맨들에겐 담배만큼이나 애용되고있는 기호품. 하지만 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지나는수가 많다. 코피와 홍차 그리고 설탕이 주는 건강損益을 점검해 보았다.

〈코피와 홍차〉 코피와 홍차는 화학적으로 성분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략 70~80종에 이른다. 이들성분은 코피와 홍차에 열을주는 가공과정에서 생겨나는것이 많다. 특히 구수한 코피의 독특한 맛은 순전히 가공과정에 따라 결정된다.

코피와 홍차의 영양분석표(表참조)를 보면 모두 영양이 다운 영양은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일을하다 막힐때, 의견이 서로 엇갈릴때,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난후, 애인을 기다릴때, 다정한 친구를 만났을때, 한잔의 코피와 홍차는 의외로 큰 힘을 안겨준다.

또 몸이 피로해 있다든지 몸살감기에 걸려 있을때 따끈한 한잔의 코피와 홍차는 약으로서의 효험도 갖는다.

그러나 카페인의 흥분작용은 순환기계통에 부담을 가져다준다. 이때문에 코피와 홍차는 흥분해서는 안되는 심장병과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같은 질환엔 증세를 악화시킬수 있다.

코피와 홍차를 많이 마시게되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카페인은 副腎으로부터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고하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皮下脂肪가운데의 中性지방을 분해, 혈액가운데 脂肪酸을 내놓게 한다. 이같은 지방산을 遊離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하루3시간 간격으로 코피나 홍차를 마시게 되면 혈액속에 이같은 유리중성지방을 늘려, 이들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혈관을 굳히는(硬化)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카페인은 피부의 색깔을 검게하는 멜라닌顆粒을 늘려 이동케하는 작용을해서 피에 갈색반점을 쉽게 만들게도한다.

한편 코피는 췌장암을 일으킬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나와있다. 아뭏든 코피와 홍차는 하루4~5잔을 넘지않는게 좋다.

코피…신진대사 촉진하지만 심장에 부담

홍차…피부색 검게하고 갈색반점 만들어

설탕…당뇨병유발, 한국人 50g이하 적당

〈설탕〉 설탕은 잘 알려져 있듯이 사탕수수와 사탕무우의 원액을 정제한것이다. 성분은 종류에따라 약간 차가 있으나 백설탕의 경우 탄수화물 97·46%(庶糖95·14%, 포도당 2·32%), 지방 0·12%, 회분 0·16%정도. 열량은1백g당 3백91칼로리. 설탕은이같이 높은 열량을 갖고있어 매일 4g씩 1주일간 계속해서먹게되면 최고체중을 1kg까지 불릴수있다.

공복과 포만감은 혈액속의 당분(血糖)농도에 따라 좌우된다. 즉 정맥속의 당분량은 늘 일정하지만 동맥속의 당분량은 음식물섭취에 따라 차가 난다. 이차가 1백cc에 10mg이상이 되면 만복감을, 이하가되면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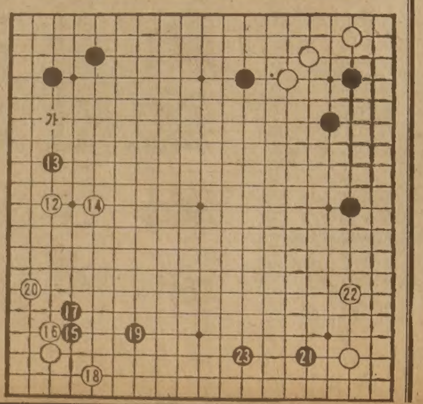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혈액속에 脂肪성분을 많이 갖고있을때 의학적으로 이를 高脂血症이라 한다. 고지혈증이 5~6년 계속되면 협심증과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같은 고지혈증을 일으키게 한다.

설탕을 하루 5~6회, 티스푼으로 2~3숟갈씩 코피나 홍차같은것에 타먹게되면 혈액가운데 중성지방량을 크게 늘린다는 실험보고가 나와있기도하다. 따라서 설탕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는 50g, 구미와 같이 곡류비중이 적은 나라는 80g이하를 섭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美식품의약국(FDA)은 설탕을 연간 40kg이상 섭취하지 않는한 인체에 해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연구보고를 내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14kg.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 【李光榮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3譜 12~23 (각5시간·덤5집반)

白〈7段〉徐奉洙〈4勝1敗〉
黑〈4段〉姜勳〈4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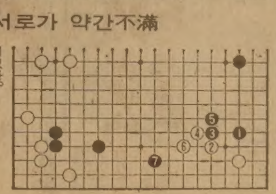
서로가 약간不滿

쌍방이 모두 차분하게 장기전을 피하여 초반포석은 불가불 소극적이라 볼수도 있는 설계였다.

白12에 대해 黑13으로 실리를 취하고 白의 태도를 관망한 수가 바로 피차 장기전을 각오한 출발이거니와 여기서 白14로 뭔것이 좀 불만스럽다는 의견이다.

徐7단은 白14에 黑이 손을빼면 白「가」로 침입하는 수를 노린 모양이지만 보다시피 黑이 당장 좌하 귀에 15로 삭감해 와서는 완전히 의표를 찔린셈이다.

白16이하 20까지 으레 생기는 기본형이지만 白집이 납작해진것은 사실. 따라서 14로는 차라리 17자리를 굳혀두는편이 나았을것 같다고 한다.



한편 黑21、23도 白18쪽에 이른바 뒷문이 열려있는 꼴이어서 불만스럽다는 평이었다.

黑21은 참고도와같이 黑1쪽에 육박하여 3、5로 우변을 확보하고 白6때 黑7이 좋은자리가 되므로 실전보다 훨씬유리하다는 의견인데 과연 어떨까。긴안목으로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없다. 〈凡〉

美스탠퍼드大 연구팀조사

우울증·걱정등 심리적원인이 主犯

환자 거의가 正常이면서 "잠부족"

"불면증 50%가 睡眠 공포때문"

불면증환자의 50%정도가 의학상으로는 충분한 잠을 자면서도 공연히 수면시간이 부족한것으로 오인하는「수면공포증환자」라고 美스탠퍼드 의학연구팀이 최근 밝혔다.

한국일보에 보내지는 스탠퍼드 醫大교내지「스탠퍼드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4월16일字뉴스에서 스탠퍼드大의대교수결과를 발표하면서『불면증환자의 50%이상은 실제 잠이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자칭환자들이며 진짜불면증환자 중에는 통상적인 수면제를 먹으면 사망할수도있는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롤만교수를 비롯한 16명의 불면증전문의들이 전국 16개병원환자 5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조사는 美의학사상 처음있는 본격적 불면증조사이기도 하다.

불면증환자는 환자도 아니면서 생각으로 병원을찾는 경우와 반대로 중증환자이면서도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통계를 내지못하고 있었다.

美수면장애센터협회(ASDC)에 가입된 병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이번 불면증환자조사에 따르면 불면증의 종류는 대략 4가지로 나누어진다.

①불면증(Insomnia) ②낮시간에 지나치게 졸리는것(Excessive daytime sleepiness) ③잠들고깨는 시간의 불규칙성(Sleep-wake schedule disorder) ④반응 소실성 異常 수면(Parasomnia) 등.

조사자 5천명중 불면증환자는 대략 3분의 1, 이중 35%는 우울증(Depression) 또는 만성적 걱정과 같은 심리적원인에 의한 불면증환자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심리적고장으로 인한 불면증은 심리요법및 적당한 수면약으로 어렵지 않게 치료되나 불면증환자중 6·2%를 점하는 無呼吸性불면증환자에게 같은 요법을 쓰면 환자의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다고 연구조사서는 밝혔다.

무호흡성불면증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는 증세인데 이런 환자를 일반불면증환자처럼 수면요법을 쓰면 각성감각을 둔화시켜 숨이 막힌채 그대로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만성 불면증중 다른 주요원인들을 보면 정신긴장으로인한 수면장애, 자면서 다리를 발발 떨어 저절로 잠이 깨는 경우, 약물·알콜등에 의한 수면장애 등이다.

불면증은 수면위생개선, 휴식, 상담등으로 개선될수있다.

연구조사반들은 뇌운동, 눈의 움직임, 심장기능검사등을 특수장치로 검사한 결과 수면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실제 정상수준의 잠을 자고 있으면서 생각으로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것임을 밝혀냈다.

특히 운전, 기타 중요한 작업과같이 졸다가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자신만의 문제』로 생각지말고 우선 병원전문의를 찾을것을 이보고서는 건의하고있다. 스탠퍼드의학팀은 앞으로 불면증환자치료사례를 종합분석하여 불면증치료의 일정한 패턴을 정립할것이라고 말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저는 한국일보가 교민사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과감히 좋은 기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LE SALON 미용실
82 Bloor St. W. (불루어×베이)
964—2715 박용숙 (Pat)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內閣 일괄辭表

긴급 國務會議, 오늘改閣

◇침통한 표정의 劉總理 20일하오 劉彰順국무총리(左)가 內閣총사퇴를 결정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한뒤 침통한 표정으로 金容烋총무처장관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의 검찰수사결과가 최종발표됨에따라 정치적차원의 民心收拾을위해 빠르면 21일중 內閣과 黨職者를 포함한 대폭적인 政界改編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하오6시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긴급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引責으로 총리및 감사원장을 위시한 국무위원全員이 총사퇴하기로 결정, 內閣일괄사표를 劉총리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劉총리는 21일 아침 청와대를 방문, 全대통령에게 一括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劉총리는 이날 긴급閣議 소집에앞서 하오4시께 청와대를 다녀왔다.

국무회의가 끝난뒤 李光杓문공장관은『지난 몇개월간 몇가지 국가적으로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런 개별적인 사건에 책임져야할 장관도 있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劉총리의 말을 전하고 전 국무위원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이어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일련의 사건처리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도의적책임을 지지않을수 없다는 차원에서 일괄사표를 제출케 됐다고 사표제출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劉총리를비롯 감사원장과 全국무위원및 法制,援護처장,서울시장, 국가안보회의사무국장등이 사표를냈다.

한 소식통은 20일『李·張씨 부부사건이 미친 국민적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국가발전을 위한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기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民正黨도 새출발을한다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이에 따른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정치적決斷이 곧 있을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宜寧사건에 이어 李·張부부사건이 잇달아 발생한것은 正義사회구현을내세우고 출범한 현정부와 국민에게 너무나 큰충격을주고있다』고 지적,『이같은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현정부하에서 빚어진만큼 國政을一新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진다는 차원에서도 內閣의改編은 불가피할것』이라고 말했다。

내각개편의 폭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고있지않으나 내각개편이 黨職개편과함께 검토되고있고 또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점에서 이번사건에 관련이있는부처의 각료와 새정부출범이전에 임명된 過渡期的성격의각료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있으나 國政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小幅일가능성도 없지않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도층주변의 정리방안과 이번사건을 교훈삼아 정책적인 면에서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民正도 改編…사무총장 權翊鉉의원

政策의장 陳懿鍾 總裁비서실장 南在斗 대변인 金瑢泰씨

"張여인·宜寧사건등에 引責 民心一新 轉禍爲福 계기로"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위의장

◇南총재비서실장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20일하오 黨職改編을단행, 사무총장에 權翊鉉의원을, 정책위의장에 陳懿鍾의원, 총재비서실장에 南在斗의원, 그리고 대변인에 金瑢泰의원을 각각 임명했다。全대통령은 또한 慶北道지부장에 李珍雨의원, 慶南道지부장에 安秉珪의원을 각각임명하는 한편 中央執行위원(無任所)에 李升玩·李相翊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李鍾贊총무는 留任됐다。

民正黨은 20일상오 李載瀅대표위원등 주요 간부들이긴급 모임을갖고 張여인사건에 대한 정치도의적인 引責의일환으로 黨職者모두가 사퇴서를 냈다。

民正黨은 黨자체가 검찰수사결과 張여인사건과는 직접관련이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內閣이 정치적책임을지고 一括사표를 제출한다면 執權黨으로서 정부와함께 國政의책임을 지고있는 公黨운명체로서 이를 지켜만볼수는 없으며 또 黨의 이미지를 刷新하고 새로운 결속을 다진다는뜻에서 총재에게 당직자들의 신임을묻고 黨을 再編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5共和國改閣史

제5공화국 출범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改閣이 있었다。

지난80년 9월2일의 組閣으로 南悳祐내각이 등장한후 ▲81년 3월6일 高建농수산 임명▲同年 3월10일 尹子重교통、崔侊洙 체신장관과 金永均 법제처장 임명▲同年 4월8일의 權重東 노동、鄭宗澤 정무제1장관 임명▲同年 4월10일 李鍾元 법무장관임명▲同年 7월16일 盧泰愚정무제2장관이 임명됐다。그러나 이는 거의가 그때 그때 필요에따른 補闕및 部分改閣형식이었으며 이번의 경우는 첫 본격적인 內閣 총사퇴이다。

劉彰順내각은 지난 1월3일 南悳祐내각에 이어 出帆했다。

總通貨 4천7백억增額 공급

金副總理 資金難 중소기업등 重點지원

당초 20~22%서 3%늘려 22~25%로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생활경제동향에 맞춰 통화운용을 탄력적으로대응해나가기위해 당초 정부가 20~22%로 제한한 총통화증가율은 22~25%로 증액, 공급키로했다고말했다。

〈一問一答내용 4面에〉

그는 총통화증가율 3%포인트 증가에따른 통화純增공급가능액은 4천7백억원이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이같은조치가 경제의 안정기조를 흐트리거나 한국은행의 發券力을 동원해 돈을더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저축재원을통한 非인플레的 방법으로 張여인사건에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침체된 농촌구매력등을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돈을풀어도 경제각부문에 순환되지않고 은행으로 바로 되돌아 들어와 경제의 활력화로 연결되지못하며 이렇게 늘어난 저축이 총통화수치만 증가시켜 실물경제와 통화공급이 맞아떨어지지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앞으로 통화공급이나 관리방식을바꿔 중소기업, 농촌등 돈이 경제의 구석 구석을 돌수있도록 종래 대기업위주의 돈흐름경로를 전환하고총통화지표관리도 월말이나 연말목표에 얽매이는대신 계절적인 탄력성을두어 연간평균잔액기준으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張여인사건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최근 정상수준으로회복하고금융기관저축도 늘어나고있지만 부도업체와 관련된 중소납품업체등 중소기업의 자금난파급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신규설정된 중소기업자금 2천2백억원이 원활하게 공급될수있도록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래성있고 기술축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개편에 첨병이될수있는 중소업체、상공부、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企協등이 이미 우량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같은담보위주의 대출방식을지양、과감한 자금방출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당면 私債파동에 따라 야기되는 자금경색은 당분간 제도금융에서 보전해나가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대신 장기적으로 이들私債자금을 양성화해나가는방안을 마련 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

社會漫評

자./ 어떤 料理가…

世襲체제 반대 北韓에 大暴動

統一日報보도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 북한의 양강도및 함경북도지방에서 金日成-金正日 체제에 반대하는 노동자와청년들이 金日成동상과 金正日의생모 金貞淑의 유적지를 파괴하는등 일대폭동을 지난4월하순과 이달초에 일으켰다고 재일교포계 일간지 統一日報가 20일 보도했다。

統一日報는 최근 平壤에서 돌아온 북한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노동자및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원들이 북괴노동당 정치국원및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崔賢의 사후 극심해진 金正日 吳振宇일파의 세습체제반대파숙청에 반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번 폭동은 4월말부터 5월초순에 걸쳐 일어났으며 궐기한 노동자들은 곳곳의金日成동상을 파괴, 길에 끌고 다니는가하면 일부 열차와 선박까지 폭파했는데 金日成동상이 파괴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신문은 지적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崔賢이지난2월 金日成1인독재와 金正日세습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진의서를 제출한 이후 얼마동안 자숙하지 않을수없었던 金·吳일파가 崔賢이 죽은뒤 당과군을 중심으로한비판세력에대해 일대 숙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커다란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統一日報는 또 작년9월淸津시에서 노동자들이 8천톤급의 선박과 철도를폭파하기도했다고 전하고 이같은폭동이 북괴의 외교정책에 큰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임시國會 召集여부 檢察발표후에 再論

3黨總務 회담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을다루기위한임시국회소집여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民正黨당직자의 일괄사퇴서제출문제가 마무리된후 최종결정이 날것으로 보인다。

李鍾贊民正、林鍾基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는 20일 낮 총무회담을 열고 임시국회소집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李 民正黨총무가 黨內사정을들어 임시국회 소집문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해줄 것을요청, 결정을 보지못했다。

이에 따라 民韓·국민당은 野圈 단독으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20일 제출한다는 방침을 일단 留保했다。

與野는 지금까지 접촉을통해 임시국회소집원칙에는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國政감사권발동에는 여전히 異見을 보여왔었다。

발명의날 受賞者에 全대통령、茶菓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沈昇澤씨(65·서울永登浦區堂山洞5街11의1)등「발명의날」受賞者33명에게 다과를 베풀고 치하 격려했다。(사진) 이자리에는 琴震鎬상공부차관、李相燮특허청장 具滋暻 한국발명특허협회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韓美경제협의회 제7차 합동회의의 미국대표단의 프레드·하틀리단장등 5명을 접견했다。

平統회의 事務次長 金相球씨 辭意표명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金相球사무차장은 20일 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食糧·에너지 日 備蓄강화

安保각료회의 결정

【東京20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20일 수상관저에서 종합안전보장관계 각료회의를열고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일본은 해상교통로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식량과 에너지비축을한층 강화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안보관계각료회의에서 해상航路帶 확보를위한 체제정비강화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地平線

일전 일본에서 거꾸로 도는 시계를 만들어 판다는 해외토픽이 신문에 실렸었다. 여기서『거꾸로』는 시계바늘이 좌회전함을 말한다。시계라면 모두가 바늘이 우회전하도록 만들어져있으니, 희한하다면 희한한 시계다. 상표선전용으로 만든『거꾸로 시계』몇천개가 단숨에 팔렸다고 한다。▼시계바늘의 우회전은 움직일수 없는『상식』이다。그러나 시계바늘은 왜 우회전해야 하는가。꼭 그래야 할 까닭은 없다。시계바늘의 우회전은 시계가 지구의 北半球에서 발명됐다는 사실에 연유할 뿐이다。지금 시계의 조상인 해시계를 설치하는 경우、北半球에서는 햇빛의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지금 시계바늘은 그 움직임을 본뜬 것이다。▼만일 문명이 南半球에서 먼저 발상이 되고, 그전통이 오늘에 이어졌다면 어떨까。南半球에 설치된 해시계의 그림자는 거꾸로 움직인다。그에 따라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가 나왔을 것이 틀림 없다。지구의 남과 북은 그렇게 다르다。北半球의 집은 양지바른 쪽에 남향으로 지어야 하지만, 南半球에서는 양지바른쪽에 북향으로 지어야 한다。▼『거꾸로시계』에서 처럼,『상식』은 이따금 뒤집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예컨대, 버스는 요금을 내는데, 빌딩의 승강기는 무료다。현대도시가 커다란 빌딩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부대시설인 버스요금도 무료라야 옳지 않은가。그경우 버스의 운영비는? 도시안에 자리하여 도시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시설의『受益者負擔』으로 대면된다。▼적어도, 교육은 헌법상 권리요 의무인데, 공납금 내고, 교육세를 물고, 市稅를 감당하는 학부형이, 왜 통학길 버스요금을 또 내야 하는가。많은 학생은 학교배정의 불균형탓으로 버스를 타지, 좋아서 버스통학하는 사람은 없다。더구나 근로청소년 할인제도를위한 부담까지, 학부형이 덤터기 쓸 까닭을 모르겠다。이런 경우야 말로 근로 청소년의 복리 수요를 유발한 기업이, 그들의 봉급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거꾸로 상식』이 정당하다。▼이보다,『거꾸로 시계』의 발상이 [illegible] 더 절실한 구석은 따로 있다。『권세』는 언제나 위에 있고,『권세』는 언제나 강하다는『상식』이다。李哲熙·張玲子씨 사건은, 이『상식』이 거꾸로였음을 증명하는 계기로삼아야 한다。정부의 사건처리에서,『바로 선 상식』을 확인하고 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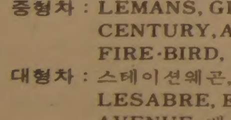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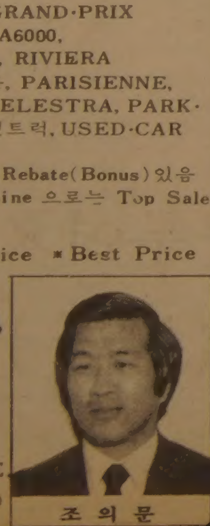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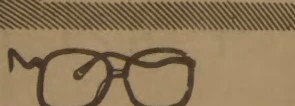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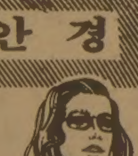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앞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OPEC회담 開幕

배럴당34弗 현행油價 고수할듯

【키토 20日發AP＝聯合】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회원국의 춘계석유상회의가 전례없는 석유과잉공급상태가 해소돼 배럴당 34달러의 기준유가를 고수할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속에서 20일 에콰도르수도 키토의 콜론호텔에서 개막된다.

OPEC석유상회의는 17~18일 이틀간 베네수엘라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4개국OPEC감시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공시유가고수를 촉구한 건의안을 승인할것으로 보인다.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석유상은 19일 OPEC의 유가조정문제에 언급, 현재의 유가수준이 그대로 유지될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日産 1천7백50만배럴로 묶여있는 현재의 OPEC 전체 산유량에 대해서는 새로이 조정할의사가있음을시사했다.

英, 곧 全面공격斷行

포클랜드事態 대처, 아르헨의 回答 거부

빠르면 오늘중 開始 / 機動함대 侵攻준비끝내

【런던19日UPI·AP＝聯合】대처영국수상은 19일 영국측의 최종평화안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회답을 거부했으며 영국기동함대로부터의 보도들은 포클랜드 전면공격이 이번주말이전에 빠르면 20일중(현지시간)으로 개시될것이 불가피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처수상이 이미 포클랜드 전면공격을 결정했다는 영국정치인들의 시사가나도는 가운데 런던의 타블로이드판 데일리·익스프레스지에 의하면 대처수상은 엘리자베드 2세여왕을 18일 알현, 『최종 시간결정만 남아있을뿐 전면공격원칙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고한것으로 전해졌다.

대처수상은 19일 전시각의를 주재한후 BBC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측의 응답이 『그다지 고무적인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측간의 간격은 크다』고 말했다.

정부관리들도 이날 전시각의가 아르헨티나측의 응답을 『유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포클랜드군도로부터 9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전투대형을 갖추고있는 영국기동함대의 항공모함인빈서블호에 탑승하고 있는 타임즈지의 존·위드로 기자는 『기동함대가 침공을 위한 최종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본사에 타전했다.

◇벨그라노號의 최후 아르헨티나 유일의 순양함 헤너럴 벨그라노號가 지난 2일 英國잠수함의 공격을 받은뒤 침몰하고있는 모습。 이 사진은 구조된 한 아르헨티나 해군이 찍은것을 입수한것이다. 【南대서양20日UPI電送＝聯合】

英國특공대 3百명 페블島상륙 作戰中

아르헨紙

【부에노스아이레스19日UPI＝聯合】영국기동함대소속 특공대 3백명이 『아마도』이미 서포클랜드북단에 있는 작은 섬인 페블島에 상륙, 작전을 벌이고 있는것 같다고 아르헨티나의 영자신문 부에노스아이레스·헤럴드紙가 1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군사소식통을 인용, 영국군은 9천명의 아르헨티나 점령군을 분산·교란시키기위해 5개방향으로 포클랜드를 공격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예상공격지점은 페블島, 東포클랜드의 서남쪽 맥브리지岬, 수도 스탠리 동쪽의 케이프·펨브로크, 동포클랜드의 로 灣및 서포클랜드의 남서부등이라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의 다른 군사소식통도 영국특공대가 포클랜드 탈환을 위해 이미 포클랜드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 특공대의 규모는 소규모단위인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이들 영국군 특공대는 10명미만의 단위분대별로 작전에 임하고 있는듯하다고 말하고 포클랜드에는 수목과 같은 엄폐물이 없기때문에 이보다 많은 수의 병력이 움직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강조했다.

自制·協商계속 호소

유엔總長 "異見해소할 새構想 제의"

【유엔본부20日AP·聯合＝聯合】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을 저지하기위한 마지막 긴급 노력으로 20일상오(한국시간)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및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양국의 자제와 평화협상 계속을 호소했다.

페레스·데·케야르 총장은 이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들 양국정부 수반들에게 전화를 통해 『우리가 평화노력을 포기하기에는 인명과 희생의 댓가가 너무 비싸다』면서 포클랜드분쟁에 자신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전화회담에서 자신은 평화이니셔티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위해 쌍방간의 『남아있는 견해차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모종의 새로운 구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中共에 교포百50만 / 韓國人교회도 4개

【로스앤젤레스18日＝聯合】중공에는 중공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한국인교회가 4개나 있으며 한국인교포는 1백5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2일부터 1개월간 北京·長春·瀋陽·延吉·하르빈등을 선교목적으로 다녀온 로스앤젤레스영락교회목사 金啓用씨에 의해 밝혀졌다.

金목사는 이교회의 노환·金창복씨등 장로 2명과 함께 선교차 지난달 12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지난12일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왔는데 金목사는 현재 중공에는 1백50만~1백70만명의 한국인교포들이 살고있으며 대부분 黑龍江·吉林省·遼寧省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있다고 전했다.

蘇고위층 中共방문 / 兩國관계改善 논의

【北京19日AP＝聯合】소련이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것과 때맞춰 소련외무성 고위관리들이 사적으로 중공을 방문, 중공관리들과 中·蘇관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련과 서방소식통들이 19일 밝혔다.

한국－유럽 3國 공동海運회담

한국과 영국·네덜란드·노르웨이등 유럽3개국과의 공동海運회담이 20일 외무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貨物積取率을조정하기위해 20·21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海運회담에서 한국측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定期船동맹憲章의 원칙에 따라 兩당사국과 제3國의 운송비율을 4·4·2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3개국은 자유積取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李祺周외무부경제국장등 7명이, 유럽3개국에선 해운관계자 11명이 참석했는데 한국은 UNCTAD 정기선동맹의 가입국이며 유럽3개국은 非가입국이다.

韓英洙의원 訪美

民韓黨의 韓英洙의원은 美국무성의 초청으로 40일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0일 하오 出國했다.

內閣불신 辛勝계기 이스라엘 早期總選

【예루살렘20日AP＝聯合】메나헴·베긴수상의 이스라엘정부는 19일 실시된 의회의 내각불신임안 표결에서 1표차로 간신히 승리한것과 관련, 금년중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베긴수상의 리쿠드당이 이끄는 이스라엘연립정부는 야당인 노동당이 제출한 불신임안 표결에서 58대 57 기권3의 아슬아슬한표차로 패배를 모면했는데 리쿠드당 지도층은 현재와같은 불안정한 우세보다는 조기총선을통한 안정적인 원내다수확보를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살러가는 소피아·로렌 탈세혐의로 3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위해 19일 로마의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에 도착한 이탈리아 여우 소피아·로렌이 한경관의 호송을 받으며 나오고있다. 【로마19日AP電送＝聯合】

"國政조사권 發動을

張여인사건 政治的 규명해야" 議政會 성명

議政同友會는 20일 성명을 내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 國政調査權을 발동해 張여인사건을 정치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同友會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뒤 발표한 성명에서 ▲前代未聞의 이사건의 진상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바에따라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있고 ▲그토록 엄청난 자금의 흐름처가 아리송하다는점으로 보아 이사건이 결코 단순한 어음사기나 外貨도피사건이 아니라는사실을 밝혀야하며 ▲이사건의여파로 정부가 즉각 특별자금을 방출한사실은 결국 우리국민이 辨償해주는 것이므로 이같은 국민적피해를 국회가 묵인한다면 국민의대표라는 국회의 존재가치마저 없다는등 6가지 이유를들어 國政調査權발동을 통한 정치적조사를 주장했다.

盧외무·印의원歡談

盧信永외무장관은 19일하오 시아印度하원의원(자나타黨소속)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 전반에관해 의견을나누었다.

內外動靜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인도네시아의 與黨인 직능그룹이 최근의總選에서 壓勝을 거둔데대해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축전을보내 축하했다.

▲全대통령은 또 제10회 國慶日을맞은 카메룬의 아마두·아히조 대통령에게 축전을보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0일하오 청와대에서 로피시 駐韓칠레대사부인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人事異動

畜協中央會

▲組合長〈靑陽〉徐理奎 ▲慶山 徐錫峯 ▲宜寧 李相植 ▲淳昌 盧源俊 ▲月城 鄭俊和 ▲咸陽 鄭鎬基 〈20日字〉

本社來訪

▲趙周穆씨(三星綜合建設사장)梁仁模씨(〃理事)인사 ▲朴炳奎씨(新政社會黨부대변인)朴永玉씨(同선전국장) ▲崔一씨(自由民族黨당의장)崔南鉉씨(同사무총장대행)金文變씨(同대변인) 新任인사차

社說

큰傷處 아물리는 英斷 —民心수습으로 信賴基盤 다져야

私債파동 사건이 몰고온 문제제기는 결코 「태풍一過」 후의 피해파악이나 복구사업등의 연상으로 간단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물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刑事的訴追의 방향과 한계를 헤아리게한 수사결과도 커다란 관심사였고, 또 경제적 타격에 대한 치유와 새活力부여의 方案도 중요한 과제이게 마련이다.

하나 이번사건은 오늘의 충격인 동시에 과거에 뿌리를 박고 미래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미를 지닌 우리사회의 심각한 공동관심사임을 생각케한다. 당장 張여인등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사건의 前向的 收拾을 논할적에는 政治的視角에서 각계 국민의 「마음의 상처」가 다름아닌 「不信」으로 진단되기쉽다는 점에 깊이 유의해야 할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全斗煥 대통령이 19일 大田에서 밝힌 감회의 피력에서도 시사되고있다. 이날 全대통령은 그곳 기관장및 각계인사들과 오찬을 같이하는 가운데 구시대의 타성인 「特權의식」의 배제와 「배경」을 빙자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등 폐풍을 불식할 의식개혁을 강조하였고 이와 아울러 制度的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는 보도이다.

바야흐로 民心一新과社會安定에 이바지할 政治次元의 信賴회복을다지는 괄목할 일대英斷이 기대되는싯점이라고 보겠다. 이미 政府는 李哲熙·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기事件에관한 檢察의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經濟對策외에 政治的次元의 民心收拾方案을 다각적으로검토중이라고한다. 이와관련하여20일하오의임시國務會議는政治的·道義的책임에 입각한 內閣一括辭表제출에뜻을 모았다. 앞으로 問責人事에 그치지않고 그 手術로 透明政治의발전 즉國政刷新의 새轉機가 마련되었으면좋겠다.

經濟政策서도 金融正常化와 景氣活性化를 위한 여러가지 고안에불여 국민이 납득할만한 참신한 斷案의 발표가 지속적 관심사로 남게된다. 刑事訴追를 뒷받침하고 善意의 피해자들을 보상해줄 각종 조치가 검토되는가운데 不條理단절을위한 制度的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此際에 「企業은 죽어도 企業人은 산다」고 개탄되는 經營風土도 刷新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한편 與·野政黨과 國會주변의 동향을봐도 다각적인 政治的收拾策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民正黨의 경우 책임집권 政黨으로서 안이하게 內閣개편과 높은 수준의 政治的英斷만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사태추이를 관망하는데 종시할수는 없다는 自家省察이 진지하게 대두된 가운데 역시 20일하오 黨職者·重鎭들이사표를제출,개편됐다. 民韓·국민당을 비롯한 野黨의 동향에서는 「국민여론의 심각성」을 직시하는데서 여러가지 代案 탐구가 논의되는 것같다. 임시국회 소집에 이은 特調委構成과 國政調査權발동 요구, 「政治活性化」 기조의 시정방향 전환 촉구등이 거론되며 산발적이나마 擧國·聯立내각 구성론도 나돈다고 들린다.

다행히 임시국회는 與·野공동으로 소집될 公算이 크다지만 特調委구성에 관해서는 우여곡절이 적지않을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건의 後遺症을 슬기롭게 다스리면서 최근에 잇딴 大型사고내지 충격적事件의 재발을 예방하는 立法府나름의 독자적인 조치를 과시해주기 바란다.

여기서 우리는 民心收拾方案이나 政治次元의 綜合對策강구에 관하여 구체적 항목을 나열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다만 오늘의 상황판단에 입각하여 課題意識과 原則에대해 첨언한다면, 우선 信賴회복없이 社會安定 없고, 民心一新없이 轉禍爲福은 어려우리라고 지적해둘 필요성을 느낀다.

이 경우 政治의 上邊과 下邊을 잇는 政策的意思형성의 調整작용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政治過程의 循環」이라고 부르며 王朝時代에는 上意下達과 民意轉達이 동시적으로 강조되던 原理에 비추어 政治的安定을 추구하는 새均衡의 설정에 최선을 다해야할것으로 믿는다.

與·野간에 일방적 展示가 아니라 主人意識을 함께 지닌 상호교통작용을 다짐할 때라고 생각된다.

국민은 더이상의 大型사고나 충격적 事件의 제기를 원치않으며 安定속에 서로 믿고 살고싶은 것이다. 이근원적인 여망에 부응할수 있도록 국민和合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心機一轉의 새出發을 政治的次元의 知慧集中에서 다짐해주기 바란다.

또 大型버스惨事 —横暴운전·過慾打算 언제뿌리뽑나

19일아침 釜山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20일자 본지11면 보도)。정주식굴암근처에서 관광버스가 굴러 10여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엊그제 일같은데 이번 다시 비슷한慘事가 대도시 부산시내서 빚어졌으니 가슴아픈 일이다.

「좁은길」「정원초과」「故意의지그재그운전」등, 세가지가 겹쳤은즉 사고가 안나는것이 例外일수밖에없는 限界상황속에서 이번惨事는 터질것이 터진것이다.

참상은 한마디로 심한것이었다。등교길의 학생 10명이 꽃다운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출근길 회사원 3명이 역시숨졌다。우선 이들의 명복을 삼가 빌고자한다。아울러 故人들에 대한 장례와 부상한 80여명 승객의 치료나 피해에 회사와 당국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조치를 하도록 힘쓸것을 채근해둔다.

이런 큰 사고가 날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운전사의 불친절과 횡포는 이번의 경우 사고의직접원인을 이루었다한다. 사고가난 노선을 독점운행하는 문제의 회사는 평소 정원초과를 예사로 하여왔다고하니 정원이 무시되는 그 풍조를 지탄하지 않을수 없게한다.

또 어떠면서 우리의 준법정신이 해이한 一面을 본듯같아 씁쓸하다. 「정원」은 그것을 위반해도 좋다는 그런 미지근한 제도가 아니다. 한데 어떤회사의 경우 이를 예사로 초과하여 손님을 태우게 사실이라면 이는 사람의 목숨을 死地로 몰고가는 모험을 함부로 한것과 다름없는 소치이다. 人命경시풍조의 표증이라 할것이다.

정원을 초과하고도 열번중 아홉번, 어쩌면 백번중 아흔아홉번은 아무일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일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人體와 人命에 관한한, 만의 한번이라도 사고가날수있는 정원초과는 이를 엄히 배격하여야 할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人命경시풍조는 이번 사고의 경우 정원초과외에 또 초과손님을 안쪽으로 밀쳐넣기위해 운전을 지그재그로 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길옆이 5m비탈인데다 그 아래가 배수로였는데도 난폭 운전을하다 핸들을 잘못 꺾어 끔찍한 참상사를 빚었다니 이 사고차의 운전이 얼마나 무모한 인명외면이었던가를 의심치않을수없다.

이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增車를 계속 요구하여오던중이라고 알려졌다. 독점노선에 운행댓수가 불충분하였으니 사고의 가능성은 그런 구조적인데서부터 깔려있었다고 봄직하다. 이용자의 不便·不快·不滿은 더 말할것없었을 이치다. 원님 떠난뒤의 나팔격같은 일이지만 회사는 즉시 증차를 서둘고 당국은 이를 신속히 허가해야할 일이다.

定員초과에서 오는 이런 不幸은 두번 다시 있어선안되고 사고는 예고없이 터지는것이니 앞날을위하여 증차는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만약 회사에 증차능력이 없거든 다른 업자를 골라 운행및 차량을 늘리고 복수경쟁을 시킬일이다.

기실 이런일은 주민의 증차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와 시당국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한데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쇠귀에 경읽기처럼 무시되었다니 감독기관은 회사및 행정당국이 저간의 요구를 무시한경위를 조사,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할법 하다. 사고도로의 너비 6m도 정원60명의 버스가 왕래하기에는 너무 좁다고 보겠다. 부산시당국은 모처럼 市域확장으로 편입한 이지역 주민들에게 보람을 주기위해서도 그 도로의 확장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가장많이 목숨을 잃고 부상한데 대하여 위로할말이 없다. 무겁고 육중한 책가방과 기타의 소지품이 사고현장에서 거추장스러웠을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어떻게든 초·중·고학생들의 책가방을 가볍고 단출하게하는 방도는 없을는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운전기사의 운전능력不足, 과로등에 따른 운전장애, 무리운전, 불친절따위 사고위험을 지닌 一切의 요인들을 이기회에 제거키 위해 당국의 각별한조치와 대책이 따랐으면 한다.

沈痛한 분위기속 緊急閣議 10분만에 內閣一括사표 결정

政局往來

◆劉총리, 청와대 다녀온뒤 閣議소집

20일하오 張여인사건 관련 인책및 收拾과 관련한 긴급閣議, 內閣一括사표등으로 중앙청주변은 사뭇 긴장된 분위기。

이날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기 2시간전인 하오 4시께 劉彰順국무총리는 청와대에 올라갔다 5시30분께 중앙청으로 돌아와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총무처에 지시.

이에 앞서 劉총리는 하오3시 韓美修交1백주년사절단 20명의 예방을받고 前유엔군사령관등 韓美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환영사를 하기도했다.

6시18분 劉총리는 金容烋총무처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실로 향했다. 국무위원들의 표정은 모두 엄숙하면서 굳어있었다.

국무회의시작에 앞서 하오 6시56분 金俊成부총리가 도착한데이어 周永福국방, 李宣基동자, 盧泰愚내무, 高建농수산, 李奎浩문교, 李正五과기처, 金宗鎬건설, 崔洸洙체신, 尹子重교통, 盧信永외무, 李光杓문공, 鄭宗澤정무, 權重東노동부장관등의 순으로 바쁜 걸음으로 도착했다.

李源京체육부장관대신 李永鎬차관이 대신 나왔다가 돌아가기도했고 국무회의실로 들어가던 李文公장관은 『기자들에게 한마디 말없이 가시느냐』는 말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이날 국무위원들은 모두 이번 일련의 사건이 자신들의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듯한 감정들이었다.

국무회의는 10분만에 일괄사표를 모아 劉총리에게 전하고 끝났으며 이어 李문공장관은 기자실에 들러 총사퇴결정과 이유를 브리핑한후 총총히 자리를 떴다.

이날 국무회의는 張여인사건발표때문인지 李鍾元법무장관이 참석지않았다.

◆民韓 "불가피한사정 아니겠는가"

民正黨 당직자들의 總사퇴 소식을 들은 民韓黨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전해속에서도 짙은 충격을 받은듯 與黨쪽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柳致松총재와 林鍾基총무는 평시와는 달리 하오 늦도록 국회총재실에서 장시간 「政局변화의 推移」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당분간은 靜觀의 자세로 예의주시하자』는 입장.

柳총재는 『民心수습을 위해서는 피할수 없는 한 과정이 아니겠느냐』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 林鍾基총무는 『일련의 사건이 天地가 진동할만한 사건인만큼 정치권의 일대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

특히 林총무는 거론중인 임시국회문제와 관련, 『民正黨측의 정돈을 어느 싯점까지 기다리는것이 정치적인 도리』라면서 『그러나 靜觀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하기도.

林총무는 民正黨중진위 일괄사퇴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이 보는 시각에 접근하는 것같다』는 견해를 비추면서 『이 싯점은 어느一方을 몰아붙이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닐것』이라고 말하기도.

◆民正 하룻밤새에 總辭退 결정

張여인사건관련설이 걷히면서 한숨 돌린듯하던 民正黨은 정치적 責任문제를 두고 內閣의 총사퇴와함께 黨職일괄사퇴를 결정, 다시 飄風에 휩쓸린 느낌.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 李鍾贊총무 尹碩淳사무차장등이 19일 深夜회동을한데이어 20일아침 일찍 비밀리에 플라자호텔에서 李載灐대표위원등 전체간부들이 다시 이문제를 논의한결과 內閣의 動態에따라 「悲壯한 각오」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특히 이자리에서는 『만일 民正黨이 일괄사퇴서를 제출한다면 관련설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反論도 있었으나 『內閣이 일괄사퇴서를 제출한다면 黨이 가만 있을수없다』는 의견이 大勢를 잡았다는것.

李대표은 이날 당직사퇴서를 모두 걷어쥔뒤에도 『국무위원은 임기가 없지만 黨職은 2년이란 임기가있기때문에 임기전에 사퇴서를낸다는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의정신과 어긋나는것 아니냐』고 연막을 치다가 한참뒤 『內閣이 결정을 한뒤에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暗示를던지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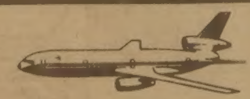
◆民正黨사정으로 회담무위 기沈痛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키위해 연일 접촉을 벌이고있는 3黨총무들은 20일낮에도 모임을가졌으나 갑작스런 民正黨의 『黨職者일괄辭退』때문에 국회소집문제는 擧論하지도 못한채 헤어졌다.

당초 임시국회소집에 대한 「時限통첩」을 띄웠던 民韓·국민당측은 이날 民正黨측으로부터 「최후통첩에 대한 회답」을 받아낼 생각이었으나 『워낙 民正黨의 분위기가 심각한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몰아세울수가 없었다』는게 야당총무들의 똑같은 답변.

이날 李鍾贊民正총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착잡한 심정』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굳게 입을 다무는바람에 座中은 침묵으로 시종.

林鍾基民韓총무와 李東鎭국민당총무는 『李총무가 괴로와하고있었다』면서 『말을 건네기가 민망할정도로 침묵의 한시간동안 民正黨의 심상찮은 사정을 엿볼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달.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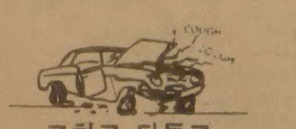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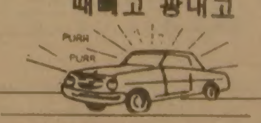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고치고 다듬고

때빼고 광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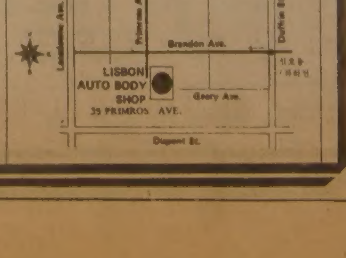
※완전 BODY WORK!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 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세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우리나라서도 石油나무가 자란다

濠産 유칼리나무 시험 재배성공

代替에너지 硏究활발

年3m 자라、유사成分 20%

나무에서 기름을 짜내 에너지로 쓰는 이른바 「목질계(木質系)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다. 대체(代替)에너지개발 방법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주목되고있는 이 목질계 에너지연구는 과학기술처와 산림청、농수산부등 유관기관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중인데 이중 산림청 육종연구소는 처음으로 「석유나무」로 불리는 濠洲産 유칼리(Eucalyptus) 나무를 도입、이미2년째 시험재배중이다. 유칼리나무는 선진국、특히 일본에서의 연구결과、어린잎과 줄기에 석유성분과유사한 기름(유칼리油)이 20%정도함유돼있어 이를 추출、가공하는경우 석유대용 에너지로 큰몫을 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즉 유칼리油 성분은 탄소8개로 이뤄진 석유의 화학구조와 가장유사한 성분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유칼리油자동차까지 실험제작돼있는데 산림청육종연구소는 지난해2월 濠洲로부터 4종류의 유칼리나무 종자를 도입、水原연구소 온실에서 파종에 성공했고 지난4월에는 濟州道 남부 육종장에 1종류당 3백그루씩 모두 1천2백그루를 식재했다.

◇水原 육종연구소온실에서 자라고있는 유칼리나무。대체에너지원이라는 용도가 뚜렷하다.

20일 산림청 관계자들은 유칼리油를 에너지로 실용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나무에서 유칼리油를 추출, 가공하는 과정에 성공해야하며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대량생산하는 문제등 몇가지 단계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그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유칼리나무는 연간 평균2m30cm~3m씩 자라는 초속성수로 유칼리유는 나무가완전히자라 목질이 형성되기전인 1~2년생나무의 어린잎과 줄기에서 기름을짜내게된다.

한편 산림청과 과학기술처등은 이밖에도 목질계에너지연구로▲포플러등 속성수의 목질을 가수분해, 알콜을 생산하는 방안과 ▲소나무등의 송진을 공업원료로이용,석유화합물로 대신시키는 간접적인 대체방안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실적에 따르면 속성수에서 알콜을 추출, 포플러의 경우 현재 건물량(乾物量)의10%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송진으로 석유화합물을 대체하는 방안은 임업시험장이 연구중인데 지난해에 낙엽송·잣나무·리기다소나무·방크스소나무를 대상으로 제초제 파라쿼트(Paraquart)를 주입, 송진형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고, 이중 방크스소나무에서 가장 많은 송진을 얻을 수 있었다.

임업시험장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송진의 성분조사를 실시하게되는데 제약이나 화장품등 공업원료로 상당한 에너지대체효과가 기대되고있다. 【鄭崇鎬기자】

全大統領이 金一封 善行교사 南吉鉉씨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善行 모범교사인 南吉鉉씨(35·京畿道 平澤郡 성동국교)에게 관계 비서관을보내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南교사는 자신이 담임한 1학년생 신소섭군이 지난3월7일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병원을 매주 土·日요일마다 찾아 신군의 학과지도를 해왔다.

全南鄕軍 체육대회 5·18 두돌 맞아

【光州】제1회 전남도지사기쟁탈 전남향군안보단합 체육대회와 金日成왕조규탄 대포모의가장행렬대회가 20일 상오 金翔植지사를 비롯, 각급기관 단체장과 시·군대표 향군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光州 조선대종합운동장과 光州역광장, 도청앞광장등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聯】

武器庫서 총기절취 첫公判서 범행시인

【順天】한전麗水지점 예비군무기고 총기절취 사건의申在龍피고인(20·麗水市東山洞8)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상오 光州지법 順天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공판에서申피고인은관여검사인 李根宇검사의 질문에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聯】

돼지우리 수리하다 소총·實彈발견

【光州】19일상오 10시께 전남海南郡海南邑海里549尹亨愛씨(48·여) 집 돼지우리 시멘트바닥밑에서개머리판없는카빈소총2정과실탄3백35발을발견, 경찰에신고했다.

尹씨에 따르면 이날폐쇄된 돼지우리를 창고로개조,사용하기위해 수리하다 밑바닥에서총과실탄을발견했다는것.

경찰은 光州사태때 탈취된 총기인지의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에 이집에살았던 집주인등을 상대로 수사를펴고있다. 【聯】

프란체스카 女史에 승용차 1臺 전달

정부는 故李承晩前 대통령의 미망인 프란체스카여사가 쓰던 승용차가 낡아 폐차처분돼 불편을 겪고있어 새승용차1대를 20일 관계자를통해 전달했다.

2인조 복면강도 새벽 家庭집털어

【莞島】19일새벽3시30분께 전남莞島郡金日面花亭里金鍾燮씨(금일약국 주인·38)집에 2인조복면강도가 침입, 잠자고있던金씨와金씨가족등을깨워손과발을나일론줄로묶고식도로 위협한뒤 장롱등을뒤져 현금 5만원과 손목시계 1개(싯가 9만원상당)등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달아났다. 【聯】

共犯잡으러간 두警官 再建隊員이 집단폭행

동행被疑者 달아나

19일 하오 2시30분께 서울江南區開浦洞산34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앞 재건대원 비닐막사에서 大邱 西部경찰서 수사과소속 金泰錫(37)、李洙奉순경(30)등 2명이 절도피의자 鄭재석씨(21·주거부정)를 데리고 공범 朴현우씨(24)를 잡으러 왔다가 재건대원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이사이 함께 왔던피의자鄭씨는달아났다.

金형사등은 이날 鄭씨의공범 朴씨를연행하기위해 재건대원막사로 들어서는 순간 안에있던 재건대원8명이 쇠파이프와 각목을휘두르며 鄭씨를 풀어주라고 요구、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각목으로 마구때려 전치 1주의부상을 입혔다는것.

두運轉士、警官폭행

교통사고낸 現場출동 조사에반발

【大邱】大邱 西部 경찰서는 20일 대구1나1946호 승용차 운전사 이정근씨(43·大邱市南區大明8洞2104)와한윤규씨(46·大邱市中區南山洞687)등2명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하오 8시30분께 大邱市西區 장기동 심홍운수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출동한 大邱西部 경찰서소속 평리파출소 김연표순경(26)이 차량을 도로옆으로 이동 시키라고 지시하자 사고지점을 표시도 하지않고 차를 옮기라고 한다면서 반발, 김순경의 멱살을 잡고 뺨을때리는등 행패를부렸다는것. 【聯】

어린이 2명溺死 호텔 양어장에서

20일하오4시15분께 서울鍾路區平昌洞102의168 올림피아호텔양어장에서 이동네 정도진씨(39)의 장녀 경화양(8·세검정국교2년)과 이관호씨(40)의 2녀 은미양(8·세검정국교1년)등 2명이 빠져 숨졌다.

경찰은 두 어린이의 옷이 연못근처에서 발견돼 어린이들이 잉어등을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숨진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양어장은 직경 5m 깊이 1m30cm 가량의 웅덩이로 금붕어 잉어등이 많다.

安東종합병원 開院

【安東】慶北북부지방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줄 의료법인 安東종합병원 개원식이20일 사내기관장·유지·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예산 34억원(차관자금 7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23일 착공한 이 병원은 安東市龍上洞1454의4 대지3천6백26평에 지하1층 지상7층(연건평 1천9백평)규모의 초현대식건물로 지어졌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경찰관이 記者구타 寫眞記者團 항의

한국사진기자단(단장宋鎬称)은 20일 지난 18일하오 光州 YMCA에서 추모예배후 연좌데모를 벌이는 장면을 취재하던 東亞日報사진부 吳岡錫기자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하고 한때 연행당한사실에대해 내무부와 관계기관에 항의했다.

釜山시내버스 전복 중상자3명 또死亡

【釜山】속보=부산北區大渚2동 시내버스전복사고로 중상을 입고 부산백병원에 입원중이던 林선미양(22·부산北區大渚2洞456)과金윤숙양(16·釜山남여고1년)등 2명이 19일밤10시와 11시께 각각 숨졌다.

또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宋경화양(19·부산北區鳴旨洞)도 20일 새벽 1시15분께 숨져 사망자는 모두14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상자 46명은 시내 5개병원에 계속 분산 가료를 받고있다. 【聯】

어음去來총액은 6千億

張女人사건 무담보貸出(共榮 日新) 2千4百億원

李哲熙·張玲子씨부부 거액 어음사기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최종 종합, 20일 하오8시 공식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張씨의 최초 자금출처 ▲자금소비처 ▲개인재산내역 ▲어음거래액수등과 이사건과 관련, 구속된 ▲은행및 기업관계자 ▲사채업자등의 범죄사실과 배후관계를 특히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특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모당간부 K의원의 배후관련설에 대해서도 張씨와 共榮토건간부, 은행관계자등을 중심으로 심문한결과를 밝혔다.

검찰은또 배후인물로 구속된 張씨의형부 李圭光씨가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어떻게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에서 지난해1월부터 금년4월까지 共榮토건과 日新제강에 대출한총액은 4천28억원이며 이가운데 미변제액이3천4백97억원이다.

두회사가 이가운데 담보로 한것은 1천81억원뿐이고 이중에는 어음담보20억원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를 하지않은 액수는 2천4백15억원이다.

검찰은 또 두은행의 배임액수는 日新제강에대해 5백96억원, 共榮토건에 대해 3백44억원등 모두 9백40억원이며 은행별로는 조흥은행이 7백33억원, 상업은행이 2백7억원 인것으로밝혀냈다.

검찰은 지금까지 李씨부부의 개인재산추적으로 드러난것은 3백억원정도이며 이들부부의채무액이1천3백억원에 이르기때문에 개인재산전액을환수한다해도1천억원가량은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李씨부부의 어음거래 총액은 6천억원정도되나 이는 張씨가 거래한 외형거래 총액일뿐이고 미결제어음 2천6백24억원은 지난11일 중간발표때와 변동이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李圭光씨의 알선수재 혐의외의 배후영향력행사등에대한 수사는 최종발표후에도 계속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검찰은 구속된 李씨의부인 張星姬씨(50)와 李哲熙부부의 韓·중동 합작은행설립을 전담했던 大和산업 기획관리실장 권영배씨등 2명도 소환키로했다.

검찰은 張星姬씨가 남편李씨가 李哲熙씨부부로부터 받은것으로 드러난 5억2천만원이외에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大和산업기획관리실장 권씨는 李哲熙씨부부가 추진중이던 한·중동합작은행설립을 기초단계부터 맡아 최근 중동을 다녀오는등 구체적으로 활약한 사실이드러나 이은행설립을 둘러싸고 접촉한 인사, 활동상황등과 李圭光씨의 배후 개입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最終수사발표 두번늦춰

○…張여인사건의 최종수사 발표를 앞두고 20일 하루종일 검찰간부들은 초조한 표정이었고 당초 발표예정시간인 하오3시에서 6시、8시로 늦추어지는등 긴박감이 감돌았다.

19일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법무부 청사에는 李鐘元법무부장관등 법무부간부와 검찰간부들이 발표문안을 작성한데 이어 20일 상오9시20분께 李장관과 鄭致根총장이 靑瓦臺로가 최종수사발표내용을 고위층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위층은 李圭光씨의 혐의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알선收財를 적용한데대해 배후역할에 관한 혐의사실이미진하다는지적이 있었다는것.

검찰은 이같은 고위층의지적에 대한 보완을 위해 발표문을 수정하느라 시간이지연되기도했다.

한편 하오3시께 鄭총장은 집무실에서 녹음기를 갖다놓고 발표문을 직접 연습해 보기도 했는데 『鄭총장이 발표를 앞두고 너무 긴장해 있는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측근 비서들은 총장이 서울지검 공안부장시절 文世光사건을 수사하고 발표하는등 큰사건에 경험이많아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私債업자 2명檢擧

張東浩씨 瑞山서 趙炳道씨는 海印寺서

【瑞山】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전국에 수배중이던 사채업자 張東浩씨(49·서울道峰區雙門5洞65의11)가 20일상오 8시30분께 충남瑞山郡浮石面馬龍里馬龍저수지에서 낚시질을 하던중 충남도경형사대에 의해 검거돼 서울로 압송됐다.

張씨는 지난해 10월부터터난2월까지 이미 구속된 사채업자 金鍾茂씨등의 부탁을 받고 조흥은행 반도지점등에 1백70억원 상당의 사채를 기예금시켜주고 수수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었다.

한편 경남陜川경찰서도 이날 수배된 사채업자 趙炳道씨(55·서울中區南大門路5街199)를 海印寺입구 세화여관에서 검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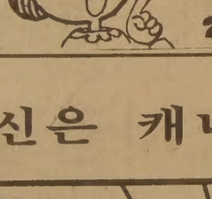
소년體典 선수단宿所에 잇단 痲醉강도

【大田=소년체전취재반】제11회 소년체전이 열리고있는 大田의 참가선수단숙소에 하룻밤사이 마취강도가 잇따라 들어임원과선수들의금품을털어갔다. 20일새벽3시께大田市中區宣化洞228홍일여관(주인 姜海淑)에 4인조강도가침입, 제주도 탁구선수단일행이 투숙한 4개의방문을 칼로뚫어넌후 마취제를 뿌리고 금품을털어 달아났다.

이들은 201호실에 묵고있는 여중부 탁구감독 金와鉉씨의 옷에서 1백50만원을턴다음, 옆방202호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상업국고탁구코치 康錫熙씨(26)가 차고 자던 팔목시계와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났다.

한편 지난17일 宣化洞24의2 천보당여관(주인 金學明)에서 마취강도가 들어 선수단금품 32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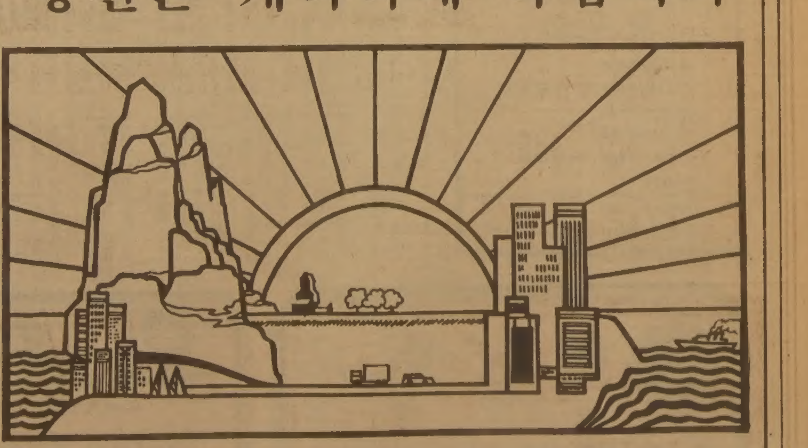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제1회 한국일보사 배
어린이 야구대회

일 시: '82년 7월 3일(토) 아침 9 시부터
장 소: 코로네이션 파크(구장 2개 사용함)
(CNE 정문앞, 레이크쇼어 × 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참 가 비: 팀당 $50
시 상: 1~3등, 최우수 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것임.
심판및 진행위원장: 박 재 선 씨
감독자회의: 6월24일(목) 오후 7시 한국일보사 사무실
연 락 처: 한국일보사 송광호(☎: 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 598-3732) 박재선 (☎: 755-6434)

주 최: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후 원: 토론토 한인회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당신은 캐나다에 속합니다



…또한 캐나다도 당신에게 속합니다

캐나다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모든 주,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우리의 매력있는 국가의 중심지 지역, 동쪽의 대서양 주들에서 서쪽에 걸쳐 높게 솟은 록키산맥.

최고의 천연적인 미; 복잡과 단순을 겸한 친근감;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넓은 휴양지.

금년 당신의 캐나다의 또 하나의 부분을 아십시요.

Canada

Canadian Government Office of Tourism
Office de tourisme du Canada

나의 이력서 ㊽

金蘇東 (題字 金蘇東)

崔寅奎감독의 과학적인 영화제작자세에 나는 우리영화재건에 적이나 든든함을 느꼈다. 6·25때 이 아까운 영화인이 납북되었다는것은 실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그는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독립전야」를 제작했고, 흑산도에 가서 「파시(波市)」도 만들었다. 고려영화회사를 운영하던 그의 형 崔完奎씨와 그의 부인 金信哉씨를 만날때마다 崔감독의 업적이 떠오른다.

1948년 8월15일, 우리정부가 수립될때까지 3년간 비단 영화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사회는 깊은 수렁속에서 혼돈을 되풀이했다. 남대문로에는 남로당간판이 버젓이 내 걸렸고, 영화계에도 소위 영화동맹파와 자유영화인파로 갈리기 시작했다.

궐기대회나 모임을 가질때도 으레 양분된 상태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다. 동맹파영화인들은 남산에 모였고, 우익영화인은 서울운동장에모였다. 남산으로 오라는 권유와 공갈과 협박이 선량한 영화인들을 괴롭히곤했다. 내 사무실에도 매일같이 협박편지가 날아들었다. 이때 을로기가 양립된 정치혼란속에서영화를 재건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일이다. 그래서 몇몇 뜻 있는 영화인들이 모여서 우리영화재건을논의했다. 1947년봄, 안석영, 윤봉춘, 이병일, 최인규, 이구영, 박기채, 신경균, 안종화 그리고 필자등이 한자리에 모여 결성한 것이 바로 한국영화협의회 (영화재건운동) 다.

映畵協議會 설립

副會長맡아 邦畵質향상·科學化 힘써

안석영이 회장, 필자가 부회장을 맡아 활동을 개시했다.

정부가 수립되자 우리들은 정부요로에 영화정책을 건의했고 당시의 국무총리 李範奭씨를 방문하고 장시간 한국영화재건을 숙의했다.

문교부 당국의 자문역할을 하는 한편 영화검서 수립과 조선총독부 영화취체 규정의 답습에 관해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무렵 쏟아져나온 그 수많은 영화들은 거의가 다 무성영화들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허용되었건만 나오는 영화들은 한결같이 영화이전의 것이며, 과학이전의것들이었다. 이러한 과도기에서 그래도 영화를 과학화해보려고 애쓴 곳은 고작 최인규프러덕션과 영화과학연구소다.

1940년 도요다시로 (豊田四郞) 감독이 만든 일본영화 「고지마노 하루」 (小島の春) 에 나는 깊은충격과 감명을 받은바있다. 일본보다 훨씬 더많은 나병환자를 가진 우리나라의 비극을 영화작품에 옮겨볼 생각으로 나는 소록도를 찾았다. 보건사회부 예방의학국장 尹裕善씨와 녹동에서 통통선을타고 소록도로 건너갔다. 원장金尙泰씨를 위시해서 2백명에 가까운 직원들이철조망으로 구획된건강지역과 수용지역을 오가면서 구라사업에 몸바치고 있었다. 나는 한주일동안이나 이섬에서 환자들과같이 지냈다.

◇1946년 崔寅奎감독이 제작한「自由萬歲」의 선전포스터。당시 관객들에게 큰감명을 준 영화다.

小鹿島 癩患者村 시나리오에 담아 촬영出發직전에 6·25터져 水泡로

연예부장인 환자 문창열씨도 만났고 R여대출신인 여환자 K양도 만났다. 젊은중환자인 시인 김해인도 만났다.

「가도 가도 끝 없는 동서남북/가을 황혼 같은 길 위에서/나는 나는 어디로 가랍니까」

애수와 망향, 절망과 단장을 읊은 이 슬픈 김해인의 시는 내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여행의 길목을 더욱 어둡게 했다.

그들의 사연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기록했다. 빨갛게 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연들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를 영원한 회색으로 물들여간다. 남해의 고도, 생의 미련을 버리고도 생을 영위해야하는 그들의 서글픈하루하루가 파도속으로 사라져가는 이 고도의 얘기를 나는 그후 시나리오로 엮었다. 제명은 「제2의 생명」 이었다. 하나의 생명을 바다속에 던져버리고 또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려 노력하는 소록도의 봄을 그려보려는 생각이었다. 「고지마노 하루」 보다 훨씬 더 훈훈한 휴매니티를 그려볼 셈으로 제작준비를 끝냈다.

1950년6월 로케이션을 떠나려할때 뜻하지않은 6·25가 발발했다.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少年體典2일째 陸上서만 大會新28·타이1개

忠南 金8개로 1位、全南 2位

【大田=소년체전취재반】 이틀째를 맞은 제11회 전국소년체전은 20일 24개 전종목 경기가 大田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해 각종 보조경기장에서 열기를뿜었다.

메인이벤트인육상은전종목경기를 완료, 여중1천5백m에서 대회신5개, 여국6백m예선에서 대회신7개, 결선서 대회신 5개등 대회신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져 첫날 대회신4·대회타이 1개를 포함해 모두 28개의 대회신기록과 1개의 대회타이기록이 나왔다.

육상을 완료한 20일 현재 메달레이스에서 忠南은 금8·은7·동5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냈으며 全南은 금8·은4·동3개로 2위, 釜山이 금5·은4·동2개로 3위를 마하고있다.

이날 남중3천m에서 충남의 朴炳駿 (14·송악중3년) 은 9분5초07로 우승했다.

육상 남중1백10m 허들에서 金應錫 (서울 成一中) 은 예선서15초4로남중최고기록을 세운후 결승서도 15초1로다시최고기록을세웠다. 이종목서 慶南의 具然玫도15초4로남중최고기록을세웠다.

스타 聖火 최종주자 3천m서도 우승

陸上장거리 有望株 朴炳駿 선수

(성화 최종주자였던 충남의 朴炳駿 (14·당진군 송악중3년) 이 남중부 최장거리종목인 3천m에서 우승했다. 朴은 20일열린 남중부3천m결승에서 9분5초0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 장거리계의 호프로 기대를 모았다.

키 1m61, 몸무게51kg인 朴은 집 (송악면운천리) 에서 학교까지 8km를 매일뛰었고 자전거를살형편이 못돼육상의호프로성장한것. 현재충남산사개공코치로있는사이클선수李欽善씨이 도 같은동네출신으로 자전거로 통하다가 사이클대표선수가된 내력과 비숫하다.

체전 3천m예선에서 9분26초F를마크, 몇달사이에놀라운 기록성장을보였다. 지도교사李晚馥씨 (36) 는 『심폐기능이 좋아 피로회복이 빠르고 참을성이 많은게 강점이다. 앞으로 대성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朴雨植씨의 3남1녀중 막내. 고등학교에 들어가 장거리 한국신기록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년체전취재반】

월드컵 蹴球

「포戰爭」아랑곳…決戰 앞으로3週

英·아르헨도 出戰준비

本選진출24팀 컨디션 조절

代表22명 확정못해 陣痛겪는 나라도

축구의 세계대전인 스페인 월드컵대회 (6월13~7월11일) 가 이제3주앞으로 다가왔다。포클랜드 사태와 관련, 英國 3개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의월드컵출전여부가 주목되고있는 가운데 본선진출24개팀은 전력평가전 전지훈련등으로컨디션을 다듬고 있다。前대회 우승국 아르헨티나는 英國과의 일촉즉발의 사태에도 아랑곳않고 世紀의 축구잔치에 대비하고있다。아직까지도 대표선수 22명의 명단을 확정하지못하고 진통을겪는 나라도 적지않다。AP UPI AFP 로이터등 통신들도 매일 월드컵뉴스를 쏟아내고있다。19일 (한국시간 20일새벽) 세계곳곳에서날아온 뉴스를 종합한다。1차리그 조편성은 다음과 같다。▲1조=이탈리아 폴란드 페루 카메룬▲2조=서독 알제리 칠레 오스트리아▲3조=아르헨티나 벨기에 헝가리 엘살바도르▲4조=잉글랜드 프랑스 체코 쿠웨이트▲5조=스페인 온두라스 유고 북아일랜드▲6조=브라질 소련 스코틀랜드

◇FIFA 우승컵

FIFA 월드컵은 어디로

世界 通信들、매일 「월드컵 뉴스」 쏟아져

英"不參종용 안해"

◆…英國정부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대표팀이 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는데 대해 반대하지않는다고 닐·맥파레인 체육장관이 19일 英國하원서 밝혔다。

맥파레인장관은 월드컵대회 출전문제는 전적으로 3개축구협회의 의사에 달린것이라고 전제하고 포클랜드사태와관련하여 英國정부가 축구협회에 월드컵 불참을 종용했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런던=[illegible]】

브라질우승 25%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유럽과 남미의 17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결과 25%가 브라질을 가장유력한 우승후보국으로 지목했으며 西獨은 16%, 前 대회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10%, 대회주최국인 스페인은 6%로 나타났다。【리오데자네이로=[illegible]】

伊프루조빠져 物議

◆…이탈리아 프로축구 득점랭킹1위인 로베르토·프루조선수 (로마팀) 가 월드컵출전 이탈리아대표선수명단 15명가운데 빠져 물의를빚고 있다。프루조는 올시즌 30게임에 출전하여 15골을 올렸는데 이탈리아대표팀의 엔조·베아르조트감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프루조의 이름을뺐다。

월드컵예선서 폴란드 카메룬 페루와 대결하는 이탈리아팀은 22일에 나머지 7명의 대표선수명단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프루조가 빠질경우 축구팬들의 여론이 들끓을것으로 보인다。【로마=[illegible]】

◇스페인월드컵공식표지

쿠웨이트 戰力과시

◆…쿠웨이트 대표팀은 19일 탄자니아의 라바트에서 열린전력평가전서 英國 잉글랜드1부리그의 맨체스터 시티팀을 2-1로 물리쳤다。

쿠웨이트는 스페인 월드컵 예선4조에 편성되어 잉글랜드 프랑스 체코와 대결한다。【라바트=AP】

스페인팀 사기왕성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10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스페인팀의 호세·에밀리오·산티마리아 코치는 선수22명의 사기가 왕성하며 정밀신체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발렌치아 (스페인) =AP】

잉글랜드 팀評價戰

◆…잉글랜드 대표팀의 론·그린우드감독은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이슬랜드 핀란드팀과 잇달아 전력평가전을벌이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6월16일 빌바오에서 프랑스와 예선 첫경기를 갖는데 그린우드 감독은 월드컵 보이코트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런던=AP】

墺, 評價戰서 連勝

◆…월드컵출전 오스트리아대표팀은 19일 벌어진 전력평가전서 덴마크를 1-0으로 물리쳤다。

오스트리아는 월드컵 2조에서 西獨 칠레 알제리와 대결한다。

오스트리아는 이에앞서 헝가리를3-2로, 체코를2-1로물리쳤었다【빈=[illegible]】

프로야구

롯데、25安打亂飛 OB大破 MBC는 宿敵해태 두들겨

5개의 홈런을 포함、25개의 안타가 난비하는 타격전에서 롯데자이언츠가 OB베어스를 11-6으로대파, 3연패끝에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20일 釜山구덕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전기리그서 롯데는 3회말 4번 金用熙 5번 金容哲의 연속 솔로호머를 비롯한 16안타를 터뜨려 3개의 홈런을 날린 선두주자OB를 격파했다.

OB는 3회초 柳志煊 5회 鄭赫鎭이 솔로 호머 8회초 楊世鍾이 3점호머를 날리며 추격했으나 초반의 대량실점을 만회하지 못했다. 그러나 OB는 통산 15승 7패로 전기리그 중반의 단독선두를 고수하고 있다.

MBC靑龍은 3패의 큰짐을 안겼던 숙적 해태타이거즈를 李鍾道 金龍達의 2점 호머등 8번 申彦皓를 제외한 주전8명의 고른 득점타로 두들겨 10-5로 대승했다.

◇20일전적

◆광주

	1	2	3	4	5	6	7	8	9	계
MBC (12승10패)	0	0	2	3	0	3	0	2	0	10
해태 (9승12패)	0	0	1	1	1	0	0	2	0	5

▲홈런=李鍾道 (2회·2점) 金龍達 (5회·2점·이상 MBC) 車榮華 (3회·해태)

◆부산

	1	2	3	4	5	6	7	8	9	계
OB (15승7패)	0	0	1	0	1	0	0	0	4	6
롯데 (9승12패)	1	0	2	2	6	0	0	0	×	11

▲홈런=柳志煊 (3회) 鄭赫鎭 (5회) 楊世鍾 (8회·3점·이상OB) 金用熙 (3회) 金容哲 (3회·이상롯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㊿

그후 인재는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 되어 돌아올지 전전긍긍 잠을 설치다가 차츰 배짱 생겨 막연히 가끔 겁을 내다가 이젠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어느 날 퇴근무렵 오목이가 우두커니 회사앞 버스정류장에 서있었다.

『시내까지 심부름 나왔다 들려봤어요』

집동네까지 같이 오는동안 오목이는 그밖에 아무 말도 안했다.

다음 날도 오목이는 같은 장소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쉴새없이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의 불빛속에 오목이의모습은 부표처럼 떠있었다.

『시내까지 심부름 나왔다 들려봤어요』

집 동네까지 같이 오는동안 오목이는 그밖에 아무 말도 안했다.

세째날도 오목이는 같은 장소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인재는 그날 퇴근후 어울리기로 돼있는 동료들과 우루루 같이 나오다가 오목이를 보자 문득 짜증스러워졌다. 동료들이 제각기 선망과 야유의 말을 한마디씩 던지고 나서 그를 따돌렸다.

『시내까지 심부름 나왔다 들려봤어요』

『너무 심부름이 잦군』

『제가 귀찮군요?』

『나라면 과년한 딸자식을 맨날 심부름이나 내보내지 않겠어』

인재는 고약한 걸 씹어 뱉듯이 말했다. 그는 그가 저지른 일의 책임이 전적으로 딸을 자주 심부름으로 내돌리는 오목이네 부모한테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배짱을 부렸다. 그러나 오목이는 탓하지않았다. 그의 말귀를 알아들은것 같지도 않았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고개를 떨어뜨리고 구두끝만 보고 걷던 오목이가 흘끗 인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같이 저녁 먹어요. 어디 조용하고 근사한데서요』

잠깐 스쳐갈뿐인 오목이의 눈길이 인재의 가슴에 깊은 통증을 남겼다. 그렇다고 원망이나 애걸이 담긴 눈은 아니었다. 그 일이 있은후 만난건 세번째지만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서로 눈길을 피하다가 처음 맞닥뜨린 그녀의 눈은 다만 슬프고 선량했다. 선량하다는게 그렇게 예리한 날(刃)인 줄은 미처 몰랐었다.

『정말은요…』

정갈하고 조용한 양식집에 마주 앉자마자 오목이 말했다.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인재는 오목이의 조바심도 놓쳐줄겸 자기의 시간도벌겸 우선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오목이는 들은척도 안하고 재빠르게 하고 싶은 말을 지껄였다.

『정말은요, 나 오늘 심부름 나온거 아니었어요. 전번에도 전전번에도 인재씨 만나고 싶어 일부러 나온거지 심부름 나온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만한 눈치는 있어』

『미안해요. 귀찮아하시는 줄 알면서도 어쩔수가 없었어요』

『귀찮아하긴 그럴리가 있나』

『변명 안해도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싫은걸요. 추근댈수록 해롭다는 것도 알아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낮부터 죽 인재씨 회사앞에서 있었어요. 그 높은 회사를 온 종일 쳐다보고 서 있으려니까 꼭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집도 너무 높아요. 깊은 낭떠러지 같아요』

높은 집이 곤두박질쳐 깊이 모를 낭떠러지가 되는 오목의 기묘한 도착 (倒錯) 에 인재는 생생한 전율을 느꼈다.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流星의 賦 <387>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⑤

복도정칙 (福島正則) 의 부장 (部將) 영산은 입화가 홍계남의 군대를 광교산속에 묶어두기만 해 준다면 안성의 공략은 수월한 것처럼 장담하고 있었지만, 과연 안성의 형세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전란이 터지자 재빠르게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홍계남의 아버지 홍자수(洪自修)였음은 이미 적은 바있다。홍자수는 그의 아들 진(震)、뢰(雷)、전(電)과 더불어 수백명의 의병을 초모 훈련하여 안성에 왜적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었다。그의 작은 아들 제(霽)는 선전관으로서 의주의 행재소에 있었고、계남은 외지에 출척하고 있었지만 항시 아버지 자수와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언젠가 안성이 위태롭다고 보고 아버지와 합류하려고 했을 때 자수의 말이 있었다。

『그럴 필요 없다。네가 수원동지에서 그만강한 무위(武威)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안성에 대한 적의세를 견제하는 결과가 되어 있다。너는 바깥에서 적을 무찔러라。우리는 안에서 안성의 땅을 지킨다』

자수의 의견은 옳았다。용병(用兵)의 묘법은 적극과 소극을 병용하는데 있는 것이다。계남이 적극(積極)으로 진격하는 용병이라면 자수는 소극(消極)을 맡은 용병이었다。그래서 양쪽이 서로 보충하여 전과를 올리게도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다 이덕남(李德男)이 안성으로 와서 자수의 병력은 그 정예(精銳)의 도를 가하게 되었다。이덕남은 홍자수의 생질이며 그러니까 계남과는 내외종간으로 계남의 동생뻘이 되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덕남은 외가에서 자랐다。그런

까닭에 계남과는 친형제나 다름 바 없었다。무술에 전념하는 계남과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도 또한 무술을 익힐 수가 있어 성년이 되었을 땐 벌써 그출중한 무기(武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덕남은 19세에 무과(武科)에 급제했다。이것은 의례에 속한 일이었다。그후 선전관으로 임명되자、훈련원의 주부(主簿) 판관(判官) 첨정(僉正) 부정(副正)으로 승진하여 난(亂)이 발생한 당시엔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훈련원정(訓鍊院正)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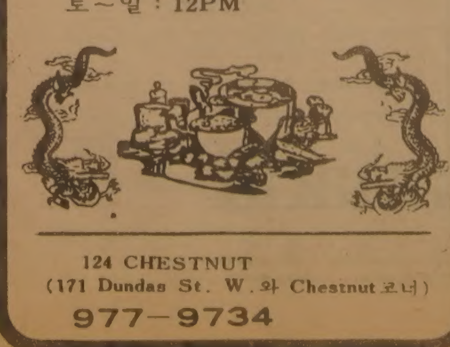
난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가 성묘차 안성에 돌아와 있을 때였다。급보를 받고 이덕남이 서울로 향했는데 판교(板橋)에 이르러 왕이 서천(西遷)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강으로 나갔으나 건너갈 배 한척이 없었다。그는 다시 안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안성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왜병을 만나 단신 왜적 수명을 치고 사지를 탈출、무사히 안성 외숙(外叔)의 집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다。

외숙 자수는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군기(軍器)를 만들고 있었고 외사촌 가운데 계남은 자수의 명(命)을 받아 어느 곳으로엔가 출동하고 없었다。

덕남이 눈물을 글썽히 하여 외숙인 자수에게말했다。

『참으로 제 운명이 처참합니다。조실 부모한 처지에 다행히도 무과에 급제하여 국록을 먹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성묘하러 내려온 이때에 난을 당하여、마땅히 임금을 모셔야할 내가 문안조차 할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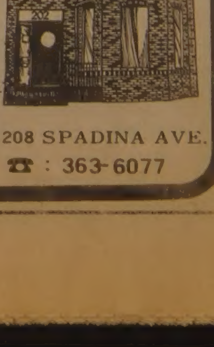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 코너)
977-9734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 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6시이후 전화요망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샙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 530-1046, 7 p.m~10 p.m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미술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총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광고문의 533-2361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Store Helper 구함.
Full Time 주 40시간
남자로서 유경험자에 한함.
오후 3시-9시까지 (주6일)
전화: 368-8147 김.

직원모집
당사는 통역회사로 아래사항에 해당한 유능한 인재를 찾읍니다. 원하시는 분은 P.O.Box 323 Station "L"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자격: 1)중국어·한국어·영어를 해독하시고 번역하실수 있는분
2)번역경험(상기 3개국어)이 5년이상 있으신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Full Time 캐쉬어 구함.
(웨스톤 × 휜치) 전화: 741-146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캐셔 또는 매니져 구함(남·녀관계 없음)
57 Willows Lane Pickering, Mr.Kim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숙소 제공해 줄수 있음)

Part Time으로 가게에서 막일 하실분 구함.
전화: 622-8516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장소에
저렴이잡이 하실 분. 높은 수입 보장함.
전화 : 466-1461

밤 11시 이후 Hotel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425-1836

◉주말에 일하실 남자학생 (파트타임)
시간: (금·토·일)
◉젊은 여자 Full Time 일하실분 구함
(월·토)
전화: 762-1572, 769-9854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30세 재혼(남) 대졸(한국), 미국생활 1년
고생같이 하실분 아래주소로 연락바람.
P.O.BOX 3313 Gardena Calif. 90247 U.S.A.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이훈모부동산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주매상: $6,500, Rent: $1,200
주5일 영업, 아스킹: $24만
다운페이: $10만, 리스3년 + 5년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Rent: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점포와 Apartment
Bloor 한인상가에 있음.
아스킹: $149,000, 다운페이: $6만.

전화: 225-1204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r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Variety & Hardware Store 급매
주매상: $9,000 아스킹: $100,000 + 스탁
리스 4년 + 옵션 5년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cent Shopping Mall 옆)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Variey Store 매매
(꼭 관심 있으신분은 내방 바람)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일요일은 쉼)
조그마한 규모로서 혼자서 경영가능
1946 제랄드×우드바인코너
(J & M Discount Store)

과일 · 꽃가게 급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8시(주6일영업,일요일은 쉼)
주매상: $6,000 개런티 리스: 4년 + 5년
Rent: $1,043/mon. 넓이: 2,385 Sq.ft.
아스킹: $40,000 + 스탁
437 Carlaw Ave.(Riverdale Plaza) At Gerrard.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세탁소 장비 일절 급매
아스킹 : $65,000. 자세한 문의는 오전8시~오후7시 사이에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255-5751 (Willian)

낚시용 Boat 매매
거의 새것임. (16 Feet Long)
전화 : 270-1981 (Mrs.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타사업 관계로 (Variety) 급매, Ticket은 별도수입
주매상 : $4,500, 좋은 살림집 꼭 관심 있으신분 전화요망.
전화: 636-4438

New Market에 있는 Smoke & Gift Shop급매
시간짧고 주6일 영업 (Lottary머신 있음)
1-895-9581 (저녁9시 이전)

Stock Sale, Giftware, Retail Value,
$10,000이상, Asking : $2,500(Cash)
전화 : 823-6390 Mr. Kim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하우스 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 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사무실 세놓읍니다.(다운타운 소재)
월: $220, Own Sign available. (any size)
전화 : 444-1322, 365-1489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광 고 접 수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칸)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 한국일보 안내광고 ＊